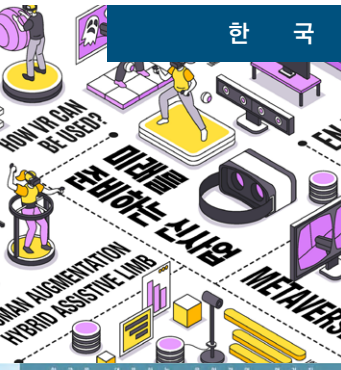


융합경영리뷰

한 국 을 대 표 하 는 융 합 경 영 매 거 진



2021년을
돌아보며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특징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생활 속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은 필연적으로 기업경영에도 역시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입니다. 융합경영 리뷰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영학과 이외 관련된 제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경영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contents

에디터 컬럼

1 2021년을 돌아보며

주제 컬럼

2 코로나19와 유니콘의 탄생,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_ 박정완
5 대세 ESG, 부각된 공급망 관리 _ 이종재
10 소비자 부문의 ESG _ 조규연
14 기적 보고서 _ 황재일

미래경영

19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 '기술 트렌드 부채 모델' 속의 인터페이스 기술
_ 한석희

디지털경영

22 메타버스 세상 _ 김종식
25 알츠하이머병 위험 인자 _ 이승희

휴먼경영

28 선배는 낀대일까? _ 이종구

글로벌경영

31 코로나 이후 디커플링 전략 _ 이영기

ESG경영

33 이제는 ESG 시대: ESG 경영지표(2) _ 탁진규

문화예술경영

42 우리 음식에 어울리는 와인 페어링 탐구 _ 이영배

융합경영 리뷰_2021년 12월호(NO.30)

발행일 2021년 12월 1일

발행처 지식플랫폼

발행인 김주연

편집위원장 엄재근

편집 그립팩스

디자인 M.S.G.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디큐브시티 15층 1512호

이메일 bookplatform@naver.com

팩스 02-6499-4370

광고 문의 '융합경영 리뷰'에 광고 게재를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융합경영 리뷰 편집위원장

bookplatform@naver.com / 010-2715-4370



2021년을 돌아보며

1년 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한 2020년을 보내며 힘겨운 2021년을 맞이하였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은 마스크를 벗고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신호탄으로 사람들을 마음껏 만나고,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때가 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2021년이 끝나가는 이때, 대다수의 국민이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코로나19는 변종 바이러스로 돌파 감염이 확산되고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하루 확진자가 11월 말 현재 4,000명대를 넘나들고 있다. 12월 송년모임은 작년처럼 힘든 상황이다.

2020년 양적 완화로 풀린 돈들은 2021년 수많은 거품경제를 만들었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다. 여전히 부동산을 비롯해 물가는 끝없이 오르고 있다. 몇 년 전 점심 한 끼 5,000원 하던 설렁탕은 이미 1만 원을 넘어섰다. 사람들의 월급 빼고는 모든 것이 오르고 있다. 각 나라의 정부는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풀린 자금회수를 위해 테이퍼링 정책을 시작하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새로운 국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심화되고 투자자들의 탈중국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경영계에는 ESG 경영이 기후변화와 함께 큰 화두로 자리 잡았다.

2021년 비대면 현상은 사회적 트렌드로 확장된 OTT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오징어게임』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송출되어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시청하였다. 집밥 수요가 커지면서 배달서비스 이외 요리 유튜브 채널과 반찬가게가 많아지고, 언제든지 간편하게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밀키트 전문매장도 늘고 있다. 또한, 신기술 혁명으로 메타버스는 교육, 취업, 학술 분야, 비즈니스 등에서 활용되기 시작했고 성장세가 폭발적이다.

2021년을 돌아보며 희망을 이야기하기는 힘겹지만, 어느 시대나 사라지는 분야와 새롭게 성장하는 분야는 있기 마련이다. 2021년 말 오미트론이라는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세계를 공포에 몰고 있다. 2022년이 2021년의 연속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그래도 우리는 2022년을 기약하며 온고지신(溫故知新)해야 한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주인공 스킨렛의 대사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와 함께 내일의 태양을 기약해본다.

융합경영 리뷰 편집위원장

코로나19와 유니콘의 탄생,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박정완



사업의 본질에 주목하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생활은 많이 바뀌었다. 특히 생활의 중심이 타인이 아닌 자신이 되어가는 상황을 맞이하며 우리는 더욱 '나(Me)'라는 존재에 대해 성찰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거리두기를 통해 나 홀로 지내거나 1인 중심의 소비생활 패턴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기업들도 소비자들의 경험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초개인화' 중심의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며 이윤을 창출하기 시작했다.

ESG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데, 중요성이 부각된 이면을 들여다보면 소비가치를 중시하는 고객

들의 전 세계적인 인식변화가 한몫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고객이 바라보는 시선이 소비를 함으로써 소유하게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소비가 사회·환경적으로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지 고려하게 됨에 따라 판매주체인 기업의 생존에도 관여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업은 자신들이 생산재를 소비하는 개인들 모두에게 집중할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불법이 아닌 선에서 고객의 행동, 소비, SNS상에서의 일상적 패턴 등을 수집하여 빅 데이터화시키고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다르게 해석해보면 고객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집중함으로써 사업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산업 생태계에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업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이유를 제공한 주체들이 바로 스타트업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기존의 대형 기업들이 놓치고 있었던,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불편함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그들의 창업 이야기는 새롭게 소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변으로 퍼져나감으로써 고객들에게 환영받고 더 많이 활용되는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등의 기술을 내세워 자신만의 캐릭터를 창출함으로써, 전통적인 대형 기업들이 파고들지 못하는 틈새를 메꾸고 있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배경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애자일한 개발력과 유연한 시장 대응으로 대형 기업들의 선회 능력을 넘어서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반면 자본력이라는 장점을 내세운 전통적인 기업들은 자신들이 투자의 주체가 되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그들의 행보를 지원하고 또 그들의 역량을 흡수하기도 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자본 수혈을 받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든든한 우군이자 자신들의 흡수 주체가 될 수도 있는 대형 기업들의 그늘 아래서 기존의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투자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 등의 정책과 규제로 인해 자신들이 시도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이해와 역량 흡수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하기에 서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현황을 보여주는 THE VC라는 곳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기업들을 통

해 집행된 총 투자금액은 84조 6,406억 원 이상이며 현재 2,182개의 투자사(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투자 프로그램으로 TIPS를 들 수 있으며 현재까지 총 투자건수는 993회, 총 집행금액은 4,983억 원으로 평균 5억 231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한국투자파트너스가 254회의 투자를 집행하였고 총 투자집행 금액은 6,260억 원으로 평균 2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그 외 프라이머(217회, 총 4,402억 원, 평균 72억 원), 한국산업은행(215회, 총 9,198억 원), 퓨처플레이(167회, 총 293억 원)를 투자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투자의 활성화는 비단 전문 투자기업(인큐베이터,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컴퍼니빌더 등) 들 외에도, 고수익과 함께 투자를 통해 성취와 보람을 얻고자하는 개인들에게까지 기회가 확장되고 있다.

개미들의 조합을 통한 투자자 변신

자본력을 갖춘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과 자신들의 전문성이나 견해를 바탕으로 개인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액셀러레이터를 선정하거나 직접 투자 대상 기업들의 멘토가 되어 대상 기업들을 육성하고 기업공개(IPO)를 통해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대중화되고 있다.

제2의 벤처붐이 일어남에 따라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다. 2021년 7월 말 기준 개인투자조합 수와 결성금액은 418개의 조합과 2,523억 원으로, 이는 2020년 동기 대비 2배에 달하며 운용 중인 조합 결성액은 무려 1조 2,127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에서도 개인투자조합의 원활한 결성과 투자를 위해 관련 내용을 9월 17일자로 개정·시행하기로 하였다. 우선 개인 등이 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조합 재산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자신의 보

관 및 관리를 위탁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조합에 대한 정보부족에 따른 관리 위험성, 낮은 수탁보수 등을 이유로 일부 신탁업자만 재산을 수탁받고 있었고, 라임 사태와 같은 사모펀드의 부실 방지의 일환으로 신탁업자에 대한 감시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업무부담으로 신탁업자의 수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조합결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위탁의무 재산 기준을 1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높였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 등 4개 업종의 금융회사(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했으나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됨으로써, 자본금이 모자라 자신들의 업에 한계를 느꼈던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벤처기업 그리고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일반 개인들에게까지 기회가 확장되었다.

이로써 투자자들의 관심은 고객을 중심으로 사업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창출할 수 있는 가치제공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차별화에 몰입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롭게 탄생된 기업들은 전설 속의 동물 유니콘으로 거듭날 기회를 갖게 되었다.

토종 유니콘의 탄생을 위하여...

전문 투자기업과 개인들의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투자의 수익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목적을 가리기 위해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사업모델과 제품, 서비스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은 더욱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 비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가진 스타 플레이어를 찾기 시작했다. 그 외중에 탄생한 유니콘 기

업들은 과연 어떤 곳들이며,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들인지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유니콘 유망 산업분야는 핀테크, 인터넷 S/W와 서비스, 전자상거래, 인공지능, 헬스케어 순으로 나타났고, 2021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힌 유니콘 기업은 총 15곳으로 올해 4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프롭테크 기업인 직방,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기업 두나무,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기업인 쉐리, 아자르 운영사 하이퍼커넥트가 있다.

하지만 그들의 투자자는 대부분 해외투자자들로 우리나라의 국부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설 속의 동물이 해외자본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면, 아무리 날개를 단 유니콘이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국가대표의 가슴에 자국의 국기를 달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 서러움을 역사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다. 마치 손기정 선수가 다른 나라의 국기를 가슴에 달고 시상식에서 타국의 국기를 보며 눈물을 흘린 것과 같은 그런 불편함을 가슴에 품은 채, 임직원들을 위해 사업을 일궈야 하는 대표자들의 마음과 일하는 직원들의 마음이 온전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사업의 본질에 주목하며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스타트업에게 올해의 노력과 성과에 큰 박수를 보내며, 그들이 앞길을 걸어 나갈 때 있어 당당하고 단단할 수 있도록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응원과 지지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박정완

현) 이니텍(KT그룹) 금융전략팀

전) 넥스스앤코드 전략컨설팅

한양대학교 경영컨설팅 박사 / Helsinki University MBA

저서: 「Premium 브랜드 마케팅」

「컨설턴트가 바라본 경험과 미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일상적 접근」

대세 ESG, 부각된 공급망 관리

이 종재



2021년 경영계를 관통한 키워드는 대세 ESG와 메타버스일 것 같다. 두 현상은 서로 다르지만 2년이 넘도록 여전히 기세등등한 코로나19 팬데믹을 그 뿌리로 한다. 전과 전혀 달라진 상황 속에서, 환경과 공존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언택트와 가상세계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ESG 경영은 특히 세상의 관심을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더니 올 한해 국내 산업현장에 불어닥친 가장 강력한 열풍이다. 이를 반영해 『융합경영 리뷰』도 ESG를 주제로 한 특집을 다뤘고 개인적인 기고도 세 차례 있었다.

4월호 비즈니스 융합의 현장을 주제로 한 리뷰에서 ESG 경영의 주요전략으로 대두된 기업 간 협업을 이야기했고, 7월호 ESG 경영의 시대에서는 그린 워싱 등

논쟁을 넘어서는 ESG 경영의 불가피성과 대응전략에 대해 정리했다. 10월호에서는 대응에 나선 기업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극복해보자는 취지를 밝혔다. ESG 경영이 비가역적 상황으로 진전되는 만큼, 기업과 사회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찾고 기업의 재무적 실적과 비재무적 활동 간의 조화와 균형이 답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ESG 경영에 대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

인다. 물론 기업이나 산업 간에 피부로 느끼는 강도의 차이는 분명하나, 대세 ESG만큼은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 따라서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준비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없지도 않다. 정부의 계획을 보더라도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한 한국적 ESG 지표, K-ESG 가이드라인이 곧 제시된다. 이는 기업들이 경영현장에서 적용할 각 항목별 실천요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증상기 각 부처별 ESG 대응계획을 밝힌 '8·26 관계 부처 합동대책'에서 정부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준비사항과 단계별 적용계획을 제시했다. 경제산업 생태계 전반에 ESG 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 업종별 대응이 가능도록 ESG 경영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글로벌 평가 공시기관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의욕도 밝혔다.

ESG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초기 진입단계의 준비내용을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예시했다(〈표 1〉). 기업의 ESG 경영 준비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구분	주요내용(예시)
환경 (E)	· (초기단계) 환경경영 목표 및 정책, 환경 법규위반 등 ·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오염물질 배출량 등
사회 (S)	· (초기단계) 사회적책임경영 목표, 신규채용, 정규직, 간접고용, 복리후생비, 산업재해율, 사회 법규위반 등 · 성평등, 인권, 공급망 관리, 사회공헌활동, 개인정보보호 등
지배구조 (G)	· (초기단계) 윤리경영 및 반부패 발생사실, 지배구조 법규위반 등 · 이사회 구성, 이사회 활동, 주주관리, 감사기구 등

〈표 1〉 ESG 경영 우선 준비사항(8·26 합동 대책)

정부는 또 상장회사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의무화 시기를 못박았다. ESG 경영을 공개 공시토록 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맞추도록 하고, 자율공시 체계를 유지하되 부처별로 적용하고 있는 기존 지표 간 정합도를 높이기로 했다(〈표 2〉). ESG 경영 실천내용을 공시하고 평가등급을 받아야 하는 상장사 등 대기업에게 보고서 준비는 ESG 경영의 첫 단계로 자리 잡았다.

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주주의 권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 (19년 기시행) 자산 2조원 이상 → (22년) 1조원 이상 → (24년) 5천억원 이상 → (26년) 전 코스피 상장사
2.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환경 관련 기회·위험요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양성평등 등 사회이슈관련 개선노력 등 · (25년) 일정규모(예: 자산 2조원) 이상 → (30년) 전 코스피 상장사

〈표 2〉 ESG 보고서 작성 의무화 일정(8·26 합동 대책)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공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ESG 경영을 남의 일처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납품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ESG 경영을 하는 만큼 무관할 수 없고 금융권의 이자율이 차등 적용되는 등 중소기업 역시 ESG 경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소·중견기업이 ESG 경영을 적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툴을 마련하고 컨설팅 공시지원 등과 연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1차적인 방안이다. ESG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수출기업과 하도급 기업 등 글로벌 규율 강화에 큰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ESG 경영이 상장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비상장사 등 사실상 전 기업의 현안으로 자리하게 된 공급망 관리 규정에 대해 대비하도록 한 것이다.

핵심과제로 대두된 공급망 관리

공급망 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의 사전적 의미는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자부터 최종 고객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물자의 움직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이다. 부품 제공업자부터 생산자, 배포자, 고객에 이르는 물류의 흐름을 하나의 가치사슬 관점에서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가 원활히 흐르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공급망 관리가 ESG 관련 공시 및 평가와 연계됐다는 사실은 상장사나 비상장사, 국제거래 관계의 여부에 상관없이, ESG 경영이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기업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

라 그 기업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은 물론, 생산물을 운송하고 판매하는 기업, 심지어 최종 폐기물처리 기업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연장선상에 있는 모든 기업이 연관되는 것이다.

공급망 관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범화는 유럽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2021년 초 독일정부는 자국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Due Diligence Obligation)을 확정해, 2023년부터 위반 기업에 연 매출 2%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3월에는 EU 의회가 인권 환경 거버넌스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채택하고 2023년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표 3)).



〈표 3〉 EU 공급망 실사 개요도(KPMG, 상의발표자료 재구성)

공급망 관리 규정은 유럽에서 이제 법안으로 채택되었고, 공식 적용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경영현장에서는 이미 상당부분 적용되고 있다. 공정거래의 준수와 재무 및 경영적 지원, 공동 R&D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동반성장이나 친환경 제품 우선 구매, 사회적 기업 지원 등 윤리적 구매 등이 넓은 의미에서 이미 공급망 관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부 다국적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인권 노동환경 등 일부 조항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증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급망 관리는 ESG 경영이란 틀로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평가하고 고위험 협력사에는 패널티를, ESG 규정 준수기업에는 인센티브 형태로 부과되어 보다 강화되고 의무화된다.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약 80%가 공급망 내 ESG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18% 가량의 기업들은 모기업으로부터

터 실제 ESG 조건의 준수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 2021년 10월 22일 발표). 또한 생산성본부 관련 부서는 현재 주요 대기업 35개사의 의뢰를 받아 1,400여 개 협력사의 각종 관련 규정 준수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ESG 이행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등도 거래 기업의 ESG 활동촉진을 위한 공급망 관리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NH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시작한 ESG 인센티브는 거래기업의 ESG 이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체화되는 공급망 ESG 준수 규정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 준수 내용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 의해 지난 8월 제시됐다. 규정은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로 나누어 발표된 모범규준으로, 기업들에게는 ESG 경영의 지침서로 활용된다.

모범규준의 공급망 관리와 관련하여, KCGS는 기업에게 협력업체에 대한 환경성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협력업체를 실사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과제를 도출해 성과평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공급망 상위에 있는 기업은 협력업체의 환경경영 확산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경영 원칙 마련 및 지원, 환경경영 체제구축 및 실행교육, 친환경 생산 및 물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및 협력사의 유해화학물질 정보관리 지원 등에도 나서야 한다.

예방적 차원의 공급망 실사도 필요하다. 위험관리는 1차 협력사, 2차 이상 협력사, 계약업체 등을 망라해 대상을 선정한 뒤 안전정책의 통합과 부정적 영향 식별, 예방과 완화활동, 점검 및 실사결과에 대한 소통 등이 이어지게 된다.

사회부문에서는 인권과 노동 안전 등에서 통합적 준

수원칙을 공유하고 실행방안에 대한 교육과 검증을 필요로 한다. 안전성 평가는 특히 기업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으나 국내외 공인된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주효하다.

최근 LG전자는 협력사 50곳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증회사(RBA)의 ESG 점검을 받도록 지원했다. 이는 점검과 개선을 마무리한 협력사에게 적합한 인증서를 발급하겠다는 계획으로, 공급망 관리의 선제적인 활동으로 평가된다. LG이노텍은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A4 용지 65쪽에 달하는 세세한 내용의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마련했다. 협력사가 사회적·환경적·윤리적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토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제시된 정부의 공급망 관리방안

정부의 공급망 관리방안은 ESG 우수기업 인센티브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지속가능경영 대상이나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 정부의 포상인증 제도를 활용해, 내년부터 재정사업에서의 우대와 조달 및 금융상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ESG 관련 포상과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낙찰자 선정 시 신인도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업체의 공급망 관리방안으로 ESG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환경평가 우수를 받은 기업은 우대금리를 제공받는다. 환경부와 10개 은행간 협약으로 우수기업에 0.1~1.5%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중인데, 협약기관과 우대금리 수준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 정부는 대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강화가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협업 및 지원 사

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CEO를 대상으로 ESG 관련 교육과 지원책을 마련할 경우, 동반성장 기금 등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지원 관련 비용을 연구 인력개발 세액공제대상으로 추가하며, 협력사의 ESG 지원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경영평가에서부터 협력사의 지속가능 경영 관련 인증 및 평가대응 역량강화 지원 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했다.

기업의 ESG 경영 대응은 관련 조직의 구축과 자가 진단, 과제도출과 실행 및 점검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진행과정과 실적은 보고서와 공시를 통해 깨알같이 공개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의 ESG 평가도 받게 된다. 이행실적과 평가등급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결정하고 국내외 거래기업의 거래조건으로 연결된다. 각종 ESG 조항에 대응하지 못하면 투자기관으로부터 경영진 배제조치까지 각오해야 하는 것이 ESG 경영의 현실이다.

하지만 ESG 경영은 단위 기업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전후방 공급망과의 공동 대응과 실행이 비재무적 활동평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ESG 경영과 함께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그리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강화가 더없이 중요한 경영요소가 되고 있다.



이종재

현) PSR(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 대표
 현) 한국생산성본부 ESG 위원장
 현) 한국일보 편집국장 논설위원, 전) 코스리(KOSRI) 대표
 저서: 재벌과 가벌(1991, 공저),
 재벌이력서(1993), 책임의 시대 (2013, 공역),
 CSR은 왜 실패했는가(2015, 공역)
 건강한 기업의 장수이야기(2016)
 공공기관 지방을 살린다(2020)

초연결, 초지능, 초디지털이 핵심인
글로벌 대전환 시대,

“누가 주도할 것인가?”



“글로벌 대전환 시대, 한국 기업가정신으로 융합하라”

K-Entrepreneurship

조규연, 탁진규, 엄재근 지음

코로나19가 만든 팬데믹, 글로벌 위기의 시기 K-방역, K-컬처, K-푸드, K-바이오 등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 기업가정신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또한, 전 세계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 중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했으며, 21세기 IT 최강국이다.

많은 학자는 기업가정신은 혁신적 창업의 근간 이고, 경제발전의 핵심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는 사회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K-앙트프리너십(한국 기업가정신)으로 새로운 시대의 기회를 주도해야 한다.

소비자 부문의 ESG

조규연

올해 전 세계 공통으로 가장 많이 회자된 두 가지 단어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가 아닐까 싶다. 2020년에 들어서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2년을 꽉 채워 가는데도 그 파괴력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구의 평균 온도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무분별한 산업화와 석탄화력 발전으로 인하여, 가뭄과 산불, 홍수,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와 기상이변들이 곳곳에서 일상화되고 있다. 수물위기에 처한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 외교장관의 수증연설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걱정스럽게 현실을 지켜보는 가운데, ESG에 대한 글로벌 논의의 재촉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진다.

최근 폐막된 글래스고 제2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종전의 석탄발전 '폐지' 계획에서 한발 물러선 '감축'으로 전 세계가 합의했다. 선진국은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기금을 2019년 대비 두 배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묶어놓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전면 중단을 세계무대에서 선언한 우리 정부의 현실적 방안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독일에서 유학시절을 보내고 자연을 걱정하는 지인은 나름의 환경운동을 한다. 몸에 진단지를 두르고 청와대 앞에서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한다. 원자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개인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들의 변화를 촉구하려는 시위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아무리 다이어트가 간절해도 원하는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무작정 굶기를 꿀 수 없는 것처럼, 변화를 위한 아주 작은 실천도 막상 하려고 들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전기 발명 이전의 원시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공장을 당장 멈출 수도 없다.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대체될 때까지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야만 한다. 이론만으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ESG 리더십을 발휘하여 설득하고 타협 및 이행하며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더 ESG를 어떻게 진행할지 모두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다. 마음만 앞서기보다, 무조건 따르기보다 양심적으로 잘 따져보고 효율성을 점검하여 기업과 국가의 ESG 파이를 키우는 일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ESG를 진행해야 할 것인가?

산업 동향

사실 ESG 관행을 비즈니스나 기업 가치와 연결시키는 것이 새롭지는 않다. 50년 전에도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신의 자

원을 활용해 이윤증대 활동에 임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역사회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정부 개선, 직원 유치, 임금을 낮추고 기타 혜택을 얻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어떤가? 사회적 공정을 중시하는 MZ 세대의 급부상도 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들은 원칙을 무시하는 기업을 외면하고 ‘착한 기업’에 열광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기후사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업이 더 투명해질 것을 소비자들은 요구하고 있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GlobalData의 산업 동향에 의하면(2021. 10. 11.), 기후변화 문제와 ESG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재 회사들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지원을 받아 명성을 얻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주의

공급망 단축, 단거리 운송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지역주의는 ESG의 핵심 트렌드다. 소비자들이 제품의 진위성과 성분의 출처에 의문을 제기하고 글로벌 전염병이 만연하면서, 현지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이 추세는 폐쇄조치가 완화되어도 많은 소비자들이 현지 제품을 고품질, 신뢰, 친숙함과 긍정적으로 연관시킬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52년 역사의 매일유업이 2018년에 완공한 고창 상하농원도 그런 의미에서 주목을 끈다. 지역 농민들과 함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가공·판매하면서 특산품을 알리고 햄, 과일, 장류와 빵 공방을 운영하며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인돌, 선운산, 문수사와 어촌 체험, 골프장 등 주변의 관광지도 덩달아 인기다. 앞으로 다가올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여 낙농중심이던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각화하고 있다.

공급망 관리

공급망 관리는 원자재 조달, 완제품의 제조 및 유통

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함된다. 최근 요소수 대란에서 보듯 공급망을 관리·개선하면 비용 효율성을 최적화·극대화할 수 있으며, 건강과 안전을 개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효과적인 공급망 관리는 변화하는 소비자 행동과 가치의 글로벌 맥락에서 정보유통과 흐름을 돕고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을 통하여 폐기물을 관리하므로 공급망 추적 관리가 가능하다.

세계 최대 소비재 기업인 Nestle, P&G, Pepsico, Unilever 등의 ESG 진행방향도 공급망(SCM) 기반 관리이다. AI 및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공급망을 추적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ESG 부정을 완화하는 기업사례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Unilever는 1만 개의 공급망 전체 거래를 추적하여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

또, D2C(Direct-to-Consumer) 전자상거래 공급망은 편리한 쇼핑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지만 기업은 환경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존 소매 공간으로의 대량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별도 배송되므로 탄소배출량을 더 많이 유발시킨다. 드론이 잠재적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위생 브랜드인 By Humankind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상쇄하는 산림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지속적인 탄소 중립 배송을 지향하고 있다.

전략적 ESG 파트너십

2018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의 26%가 식품 생산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기업들은 ESG 전략을 기업 의제에 통합하고 친환경 자격을 얻으려 애쓰지만 고위 경영진의 74%는 마케팅 활동이나 그린 워싱이라 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경향이다. 소비재의 가치사슬 전체가 참여하여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총체적인 소비재 ESG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1973년에 독일에서 첫 사업을 시작한 대형 슈퍼마켓 체인 Lidl의 영국 지점도 온실가스 줄이기에 동참하기 위해 영국 내 가장 큰 독립 치즈 생산업체인

Wyke Farms와 제휴하고 탄소중립 체다 치즈를 공급할 것을 발표했다.

S&P Global Sector, The ESG Risk Atlas는 전 세계에 산재한 상대적 ESG 위험을 추적한다(2019. 5. 19.). 소비재와 소매업은 34개 부문 중 13위와 15위이다. 건강관리는 28위로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개선 여지가 있다. UN 산하 농식품 이니셔티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1조 달러로 추산되는 식품 공급망에서 약 33%가 매년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데도 굶주리는 기아인구가 전세계 2억 명 이상이라니 참 아 이러니하다. 전 세계 담수의 70%는 농업에 쓰이고, 주거지에서 50%가 소비된다. 농업의 가공, 제조 및 유통 등 식품분야에서 온실가스의 30%가 배출된다.

ESG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기업은 강화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도록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33%가 넘는 경우 국가가 사실 확인을 위해 개입할 위험이 있다. 소비재의 경우 비만위험 경고, 지속가능성, 식품 안전성, 건강과 웰빙, 라벨링 등을 적극 규제하는 걸 볼 수 있다. 의료 환경, 시장접근, 제네릭 의약품 규제, 가격책정, 혁신자금 조달 및 임상실험 등도 규제 대상이다.

지배구조 및 환경

ESG 항목을 고려할 때, 신흥 시장(EM)에서는 지배구조가, 선진 시장(DM)에서는 환경요인이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SPA 브랜드(special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패스트패션)가 대유행하면서 면화재배 지역의 피해가 전해졌다. 목화 재배에 물이 과도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염색 및 제조과정에서 화학약품, 표백제, 염료 등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약과 살충제가 다량으로 쓰이면서 중독으로 인한 농민 피해가 이어진 것이다. 또, 미국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2013년 미국에서 1,510만 톤, 영국에서 120만 톤, 스웨덴에서 13만 톤의 섬유가 버려졌고 2018년에는 모든 섬유의 14.7%에 해당하는 250만 톤이 재활용되

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의식적 소비자 중심주의’가 확산되었다. 국제 컨설팅 업체인 McKinsey에 따르면 소비자의 70%는 친환경 제품에 대해 5% 더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 이는 다국적 기업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순환성

유지업의 다국적 기업 Unilever의 CEO 앨런 조프는 미래 소비자 행동주의를 선점하기 위해 리사이클이 가능한 제품임을 증명하거나 중단 위험 있음을 알리도록 책임자에게 요구한다. 소매업체들도 지속가능한 면화 출시와 윤리적 컬렉션임을 밝히고 있다. SPA 브랜드의 대표적인 업체로 꼽히는 H&M의 ‘Conscious Collection’, Zara의 ‘Join Life’ 제품군, 럭셔리 부문의 재활용 가능 섬유와 실험실에서 만든 다이아몬드 같은 친환경 소재, 다회용으로 알려진 비건 가죽과 인조모피도 이에 해당한다. The RealReal과 Vestiaire Collective 등 글로벌 럭셔리 리세일 플랫폼이나 Panoply나 Cocoon 등 리류 대여 서비스의 온라인 모델도 인기가.

사회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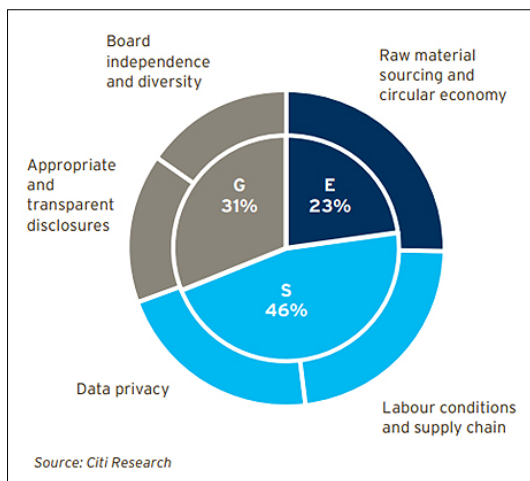
신흥시장과 선진시장 모두 노동조건은 특정 영역(급여, 근무 조건, 의료 혜택, 교육, 육아휴직 등)의 사회책임 요인과 관련 있다. 이 부분의 정책으로 ESG의 ‘S’를 제공하고 직원 부재나 이탈로 인한 공급망 붕괴도 줄일 수 있다.

ESG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 비용(오염, 목표위반 또는 규제 준수 실패에 대한 벌금)을 줄이고 소비자 마음을 얻도록 자격을 증명하거나 수익화하도록 공급망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에 달려 있다. 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프로세스 전반에서 공급망을 통해 이산화탄소 발자국과 물 사용량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책임자 역할이 중요하다.

McKinsey 보고서는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기대치를 조정하고 이행하는 것이 ESG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2019년 8월, 181명의 CEO는 '목적 있는 이익' 전략을 정의하고 균형유지를 약속했다. 같은 보고서에서, ESG 우려에 주의를 기울이는 기업이 가치창출의 장애가 아니라 경기부양임을 강조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44%가 지속가능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이유로 비즈니스 성장 기회를 꼽았듯, 강력한 ESG 제안은 높은 자기자본 수익률과 관계가 있다.

먹거리를 통해 ESG 경영에 집중하는 네슬레는 CSV 개념을 세계 최초로 경영에 도입한 것으로 유명한 스위스 대표 식품기업이다. 네스퀵, 킷캣 등 주요 브랜드 제품군에서 2000년 대비 1/3 수준으로 당류를 줄였다. 이런 활동으로 이미지 개선에 성공하였고 10년 전에 비해 주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다. Unilever가 물을 덜 사용하는 태양광 식기 세척액을 개발한 뒤, 물 부족 시장에서 20% 이상 더 판매된 사례도 있다.

ESG의 상대적 비중을 나타낸 신흥시장과 선진시장의 비교에서 글로벌 소비자 상위의 ESG 테마는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적절하고 투명한 공개, 이사회의 독립과 다양성, 원자재 출처 명시와 순환경제, 노동조건과 공급망 그리고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다.



글로벌 소비자 상위 5대 ESG 테마

기후 변화

플라스틱 폐기물 등에 대한 인식 증가와 함께 투자자 및 소비자 행동주의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기업은 원자재를 조달하고 공급업체가 제조 발자국에 대해 책임지는 것부터 최종 시장에서 제품 배포 방법에 이르기까지 전사적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ESG 의제는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회사 평가방식에 확실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ESG를 수용하지 않는 회사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참고자료

ESG in Consumer and Healthcare Sectors, Treasury and Trade Solutions, 2020 CITI

<https://brunch.co.kr/@khugcp2020/2>

<https://www.fao.org/food-loss-and-food-waste/flw-data>

https://www.spglobal.com/_media/documents/ratingsdirect_theesgriskatlassectorandregionallrationalesandscores_41534468_may-15-2019.pdf

<https://www.consultancy.uk/news/26874/the-worlds-40-largest-fast-moving-consumer-goods-companies>

<https://www.epa.gov/facts-and-figures-about-materials-waste-and-recycling/textiles-material-specific-data>

「이것이 ESG다」, 매일경제신문사



조규연

현) 산업정책연구원 연구교수

현) 국제인증코치(PCC), 한국인증코치(KPC),

갤럽강점코치(Clifton Strengths Coach), 인코칭 전문코치

현) 꼬레아대표, AC&C이사, 해봉장학회감사

전) 한국항공대 겸임교수, 인덕대, 경희대 강의교수

기적 보고서

황재일

지난 9월호 칼럼에서 나는 전자책을 하나 출간할 예정이라는 언급을 했다. 결국 지난 10월에 나의 네 번째 책이 출간되었다.¹ 이 책의 제목이 바로 『바보연금술사의 투자 성공기』²이다. 그리고 이번 달 칼럼의 제목은 그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의 소제목 그대로 따왔다. 마침 2021년을 마무리하는 12월호에 실릴 칼럼이니 저 제목이 나로선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나 개인에게 올 한 해는 정녕 기적으로 가득 찬 해였기 때문이다.

저 책 속에 한 곳에서 나는 내 그 당시 심정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표현해준, 소설 『마션』의 첫 구절을 인용한 적이 있다. 여기 다시 한 번 인용해볼까 한다.

아무래도 졌됐다. 그것이 내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다. 나는 졌됐다.

이번엔 내친김에, 내가 역경의 정점에서 잠시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 엘살바도르란 나라로 한국 정부가 파견하는 자문관 업무를 수행하러 떠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정리한 것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18년에 발간한 수기집(手記集)³ 맨 앞에 실렸는데, 그 글 맨

처음 등장하는 단테의 신곡 첫 구절도 인용해본다.

생의 절반을 보낸 나는 올바른 길을 잃고 홀로 어두운 숲속에 서 있었다. 아, 그토록 음산하고 울창하며 험한 그 숲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

나는 개인적으로 2018년 초까지 수년간 저 지경이었다. 저 두 인용문이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그리고 2019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런 외침이 절로 터져 나오게 하는 현실이 쓰나미처럼 몰려온 지 2년이 되어간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나 개인 앞에는 오히려 극적인 반전 드라마가 그 2년간 펼쳐졌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중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 쓴 책 앞에서 말한 대로 지난 10월에 세상에 선을 보였다.

오늘 나는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이 칼럼을 통해 저 책에서 못 다한 나머지 기적들에 대한 보고를 시도하려 한다. 외부환경이 아무리 암울하다 해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점을 이 글을 읽어주는 독자들에게 증명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1 공동 저술한 2권은 제외하고 단독으로 출간한 책들만 따져서 그렸다.
2 부제는 '아마추어 트레이더의 7년간 FX 트레이딩 기록', 황재일 지음, 지식플랫폼, 2021년 10월 20일
3 『찬란한 나의 두 번째 인생』,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발행, 2018, 비매품

‘마이 드림북’ 이야기

나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식근로자들을 대상

으로 소위 '소프트 스킬'에 대한 교육·훈련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그 내용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꿈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를 문서화하라는 것이었다. 내가 걸어온 이 직업이 갖는 최대의 장점은, 남을 가르치면서 실제로는 나 자신이 가장 큰 배움을 얻는다는 점이다. 그 일례가 바로 이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하기를 내 삶에서 습관화한 것이다. 나는 지금 사실상 은퇴한 나이이지만 여전히 이 습관을 지켜나가고 있다. 매년 파워포인트로 다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은 문서를 만들어놓고 수시로 들여다보고, 성공을 이미지화하려고 노력한다.



올해 초에 나는 단기와 중기 그리고 장기 목표들을 저 '마이 드림북' 안에 기록해두었다. 단기는 전반기 동안 이루고자 하는 것들 5개가 있었고, 중기는 연말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것들이 7가지가 있었다. 장기는 앞으로 2~3년 안에 이루기를 희망하는 것들로 5개가 기록되어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월세 아파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새 보금자리가 정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있고, 중기적으로는 투자 성공기에 관한 책을 출간하는 것이 있었다. 그렇게 올해 말까지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 12가지를 열거해놓았던 것인데, 올해가 한 달 남짓 남아 있는 11월 하순인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

12가지 중 딱 한 개만 제외하고 11개가 모두 거짓말

처럼 다 달성되었다. 10년 동안, 혹은 그 이상이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머무를 수 있는 장기 임대 아파트가 기적처럼 내게 나타나서 지난 10월 16일에 이사를 마쳤다. 책 출간 역시 지난달에 마무리되었음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집에 대해선 조금 더 자랑질을 해야겠다. 새로 주어진 보금자리에 대해 나는 7가지 조건을 열거해놓고 기도했다. 예컨대 예산이 내 수입의 범위 안에서 감당 가능한 집일 것, 적어도 내 서재 방에서 숲이 보이는 커다란 창을 가진 집일 것, 방 3개와 화장실 2개를 갖춘 집일 것, 전원 분위기와 도시의 편리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집일 것 등등...

지금 내가 이사 온 이 신축 아파트는 그 7가지 조건을 100% 다 갖춘 집이다. 정녕 꿈같은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증거로 내 서재에서 찍은 사진 한 장 곁들여 본다. 마이 드림북 겉표지에는 인터넷에서 발견한 다른 이가 찍어놓은 사진을 붙여놓았지만, 이 사진은 바로 내가 직접 찍은 내 서재 모습이다.



이 대목에서 나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독자들과 나누고 싶다. 그대는 내가 지금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자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리라 믿는다. 왜냐하면 이 나이에, 나는 아직도 무주택자임을 고백한 셈이기 때문이다. 하긴 '아직도'란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지난달 발간한 나의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해보자.

요즘 들어 '벼락저지'란 신조어가 회자하고 있군요. (중략) 본인도 객관적 현실로는 누구보다 저런 불명예스러운 호칭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부가 둘 다 소위 흠수저 출신이었지만,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목동에 30평대 아파트 한 채와 용인에 60평대 아파트 한 채 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얼마간 밝힌 바와 같이 운명의 가혹한 장난으로 2018년 7월에 깨끗하게 빗잔치하고 나니 내가 가진 실물자산 가치는 거의 '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거나 나는 현재 살 집 한 채조차 보유하지 못한 '무산자'다. 대한민국 60대 보통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결코 물질적 풍요로움을 자랑할 처지가 아님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멋진 보금자리가 짠하고 기적처럼 나타나준 것만으로도 정신적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있다.

이제 철없는 애들처럼 대책 없는 자랑질을 늘어놓는 주책을 서둘러 갈무리해야 하겠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앞에서 소개한 내 책은 분량이 좀 많아서 2권으로 발행되었다. 원고지로 약 1,200장에 달하는 나의 이야기의 맨 마지막 부분을 여기 인용하면서 오늘 칼럼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또 하나 소중한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저 '우주는 가상현실이다'라는 새로운 인식은 내 삶에 대한 절대적 '주인의식'을 갖게 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과거에 아주 쉽게 냉혹한 삶의 현실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거의 평생 크리스천으로 살아왔는데, 거친 인생의 항로를 항해하면서 다음과 같은 피해의식이

영혼을 질식하게 하는 지점까지 이르렀음은 이 책 본문에서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된 것은 모두 하나님 덕분이니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 그리고 잘못된 것은 몽조리 다 너 인간의 사악함과 죄악 때문이니 불평은 깍소리도 내지 말고, 자업자득이라 여기고 모든 불행을 스스로 감당하라.'이니, 이런 일반적이고 이기적인 신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이 지점에서 저 '우주는 가상현실이다.'라는 혁명적 인식이 내게 구원의 빛처럼 찾아왔고, 나의 피해의식은 말끔하게 씻겨나갔습니다. 사실상 내가 바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우주'의 창조자라는군요! 내가 시나리오 작가이며 감독이랍니다. 도대체 누구를 탓할 것입니까? 모든 것은 내가 책임을 지되 또한 동시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무한한 책임과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 또한 나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벼락저지'가 되었다고 아파하는 그대여. 깨어나십시오. 지금 그대는 악몽을 꾸고 있을 뿐입니다. 코로나19 탓, 정부 탓, 운명의 심술 탓 그만 멈추시고 이제부터 그대의 우주를 스스로 창조해갈 수 있음을 믿고 과감하게 한걸음 다시 내딛으십시오. 여기 온 마음을 다해 그대를 응원하는 이웃이 있음을 기억해주시십시오. 이만 줄이겠습니다.

황재일 경영학박사
 (현) 유튜버, 컬럼니스트
 (현) (주)나도주개 경영고문
 (전)엘살바도르 교육부 자문관
 (정보통신산업진흥회/NIPA 파견)
 (전) 성신여대/aSSIST 겸임교수
 (전) 베스트러닝 대표
 (전) 한국IBM 컨설팅 전문위원





뒤늦은 나이에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금융 트레이딩에 뛰어든
아마추어 FX 트레이더의 7년간의 기록!

황재일 박사의 「바보 연금술사의 투자 성공기」 이북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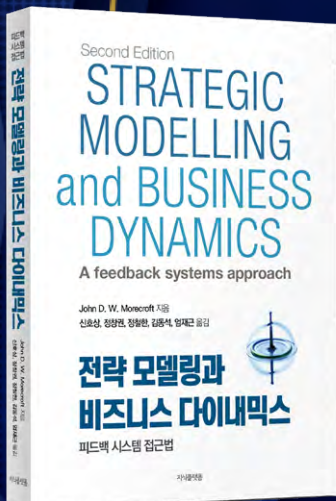
‘바보 연금술사’라는 별명을 가진 저자가
롤러코스터와 같은 금융시장에서
험난한 모험을 통해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자신만의 성배!

바보 연금술사의 투자성공기
그 이야기속으로 초대합니다!



전략 모델링과 비즈니스 다이내믹스

★★★ 피드백 시스템 접근법 ★★★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피드백 시스템 사고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예측 분석법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기업, 정치, 군사,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다양한 정부 프로젝트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환경, 사회, 산업 전반에 걸쳐진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시나리오 모델링은 현상을 예측 가능하게 하며 전략적 사고를 갖게 한다.

저자 John Morecroft는 런던 경영대학원에서 다양한 시스템사고 및 전략 모델링 수업을 진행하였고, 이 책이 해당 수업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 이 책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다이내믹스 분야의 교과서로 명성이 높은 만큼 한국에서도 꼭 필요한 책이다. 영어 원문으로 일부 대학원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 번역본이 나와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을 공부하고자 하는 국내 독자들에게 쉽게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전략 모델링 교재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John D. W. Morecroft 지음 | 신호상, 정창권, 정철한, 김동석, 엄재근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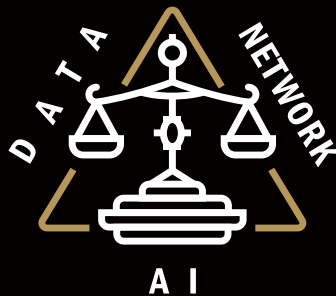
디지털 뉴딜 시대

리더가 꼭 알아야 할

데이터 3법

IT 전문가와 변호사가 쉽게 풀어가는
Data, Network, AI_디지털 뉴딜 비즈니스 핵심 가이드

백남정, 한혜선, 고대민, 홍성환, 이욱희, 최미연 지음



- ☑ 디지털 뉴딜 시대의 인공지능과 데이터 3법
- ☑ 데이터 3법 개정과 데이터 시대를 대비하는 법
- ☑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 ☑ 테크핀과 마이데이터, 블록체인 활용하기
- ☑ 인공지능과 딥러닝의 미래 기술 동향
- ☑ 오픈뱅킹, 로보 어드바이저 영리하게 활용하기
- ☑ 모바일 의료용 앱 개발 시 이것만은 알아두기
- ☑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신사업을 위한 비즈니스 해법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 ‘기술 트렌드 부채 모델’ 속의 인터페이스 기술

한 석 희

이 글은 『융합경영리뷰』 2021년도 10월호 및 11월호에 실린 2개의 연재 글에 이은 마지막 글이다. 첫 번째 글은 스마트공장을 실현하는 기술 트렌드를 살펴보는 것에 할애하였고 그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인 DX(Digital Transformation)에 논의의 중심을 두었다. 두 번째 글은 ‘자동화(Automation)’ 또는 ‘지능화(Intelligence)’ 기술과 그 발전 트렌드의 분석에 할애되었다.

마지막 연재에 해당하는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 지능화 기술을 이어주는 인터페이스(Interface) 기술에 대해 논의하고 정리한다. 현재 시점에서 뜨겁게 달궂고 있는 메타버스(METAVVERSE)는 대표적인 인터페이스 기술이다. 이런 인터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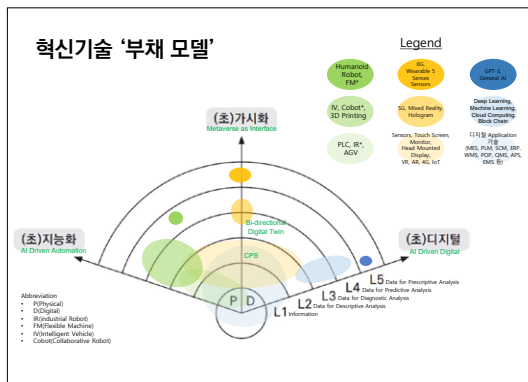
기술을 통해 물리적인 현실세상과 디지털 가상세상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페이스 기술이라 결국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기술인 셈이다.

참고로 아래 그림은 전편의 글에서 소개되었던 기술 트렌드의 ‘부채 모델’ 도표이다.

‘부채 모델’ 속의 연결고리 인터페이스(Interface)

그간의 경험으로 알게 된 사실은 디지털 기술(DX)과 자동화 지능화 기술(A&I)은 상호정보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비로소 더 의미 있는 일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런 도전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도되고 그 가치가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세상에서 모델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가지고 제품도 개발하고, 공장을 구축하고 생산의 문제점도 사전에 검증하곤 했다. 이런 활동의 공간을 CPS(Cyber Physical System)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덕에 자동차나 항공기의 개발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개발비용도 대폭 낮출 수 있었다.

이런 검증은 초기에는 주로 장기간 프로젝트로서 장기적인 인터벌로 시행되었다. 자주 시행하는 일은 아니었다. 기술 성숙도와 그 활용이 자주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탓이었다. 그러나 기술발전 덕에 이런 검증을 시도하는 기간(인터벌)이 점차 축소되고 바



스마트공장 혁신기술이 응용되어 진화 발전하는 3개의 축으로서 ‘물리 세계’, ‘디지털 가상세계’ 그리고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부채 모델’

야호로 실시간으로 정보와 데이터가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 양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그 즈음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란 용어가 등장하여 CPS와 병행해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어느덧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데이터는 양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해졌다.

그런 와중에 사람들은 사람 자체도 아바타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오가는 가상과 현실 속을 오가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꿈과 상상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 사람이란 존재가 아예 '거울세계'로 오갈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즈음 '메타버스'가 세상에 등장했고 큰 주목을 받고 있다.

Interface 수준 5단계 구분

이처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1' 단계 기술수준은 대체로 HMI(Human Machine Interface)를 의미한다. 가장 기초적인 기술수준으로 실물세계를 대신하여 사람이 주로 데이터 또는 단순한 정보를 입력한다. 주로 단말기, 디스플레이, 펜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나 정보를 입력한다. 이렇게 입력되는 데이터와 정보는 디지털 공간으로, 또 실물세계의 설비나 라인으로 동시에 전달된다.

'인터페이스 2' 단계 수준은 사람이 수동으로 입력하는 데이터 외에도 센서와 PLC에서 데이터와 정보가 수집되고 배포된다. 보통 이런 2단계의 인터페이스 기술 세계는 현실세계의 현상을 설명하는 수준으로 정리되고 요약된다. 대체로 이런 일은 자동과 수동이 함께 운용된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의미 있는 결과가 바로바로 사람에게 배포된다.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인터페이스 3' 단계는 데이터의 처리가 수동처리에서 보다 자동화에 가까운 단계로 나아간다. 인터페이스 1,2 단계가 동시에 구현됨은 물론이고, 실물세계의 데

이터와 정보를 이용하여 가상 디지털 세계의 시뮬레이션 정보가 실시간으로 실물세계로 전달된다. 물론 이는 사람이 구성된 알고리즘에 의해 성취된다.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의 계획을 소리 없이 수행하는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어쨌든 양방향으로 데이터와 정보가 오가는데 이런 일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것을 점차 지향한다. 그러나 이렇게 얻는 결과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 크다. 중앙 관제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결정이 사람에게서는 핵심활동이며 이를 위한 단말기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공된다. 일부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모니터링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인터페이스 4' 단계는 디지털 가상세계와 실물세계의 데이터와 정보, 분석 결과를 인공지능이 사람이 정한 룰에 의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도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의사결정의 일부에 참여한다. 그렇지만 역시 아주 중요한 결정은 사람의 몫이다. 이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디지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창을 구축한다.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인터페이스 5' 단계는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며 여러 대안을 가지고 선택하며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최종결정을 사람에게 의뢰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이다.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사람과 기계 또는 AI가 동시에 공유하고 최종적인 핵심 의사결정은 역시 사

람의 몫으로 남는 단계이다. 이 시점부터 인간은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로 직접 들어가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비로소 사람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시대에 사무직으로 일하는 직원들은 업무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했지만 제조생산 현장의 직원들은 재택근무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인터페이스 4단계 또는 5단계 기술이 실현된다면, 현장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점차 재택근무를 하거나 소위 '언제 어디서든지 일을 볼 수 있는 스마트워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메타버스가 단순히 가상의 공간이 아닌 실물세계와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진정한 스마트워크가 제조생산 영역에서도 구현되는 셈이다.

그러나 인간이 구현한 세상의 모든 산업현장에서 또 모든 생산공정에서 이런 수준의 기술이 널리 응용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지 않는다. 기술의 적용과 응용은 여전히 투자대비 효과, 가성비 등의 평가과정을 통해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그 외의 조건에 의해서도 늘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본다. 너무 지나친 기술찬양 일색의 상상은 우리를 버블에 빠지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과거는 물론 현재에서도 충분히 목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상상은 늘 앞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상상하는 것은 호기심과 창의력을 이끌고 마침내 이전에는 구현이 어려운 일을 눈앞에 실현해낸다.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메타버스의 세계가 제조생산 현장으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다만 그 구현의 디테일에서 상상과 현실세계를 오가는 섬세한 혁신기술과 논의가 필요하다.

독일이 주도하는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와 같은 기술표준 활동이 그 좋은 예인데, 이는 현실세계의 모든 자산을 가상세계의 디지털 자산으로 만드는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 산업현장에서 뿌리 내리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지만,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수준의 디테일한 활동이 여기저기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논의의 정리

그간 3번의 기회에 걸쳐 디지털혁신기술, 자동화와 지능화 기술 그리고 인터페이스 기술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고 논의하였다. 논의방법은 문헌을 찾거나 탐색하기보다는 현장에서의 오랜 시간이 내어준 경험적 지식을 통한 직관적인 논리전개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동안 이런 논의를 나름 공개적으로 평가받고자 최소한의 노력을 수행했다. 즉, 이 글에서 등장하는 '부채모델'을 여러 차례 국내외의 기술 전문가들 앞에서 소개하고 그 배경을 설명한 바가 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반박이나 문제제기가 없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실제현장에서 활약하는 기술공급 기업들의 기술수준을 평가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또 세상에 공개하고자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앞으로 이론적이든 실증적이든 이렇게 제시한 3개의 글에 대한 논리전개에 살을 보태거나 더 나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 제안을 기대한다.



한 석 희

4차산업혁명연구소 대표
공학과 경영학을 함께 공부한 '4차 산업혁명', '스마트공장, 디지털 혁신' 전문가. 여러 대학, 협회, 정부기관 등에서 강의, 컨설팅,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추진 방법론 PASE를 국내, 해외에 전파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

메타버스 세상

김종식

페이스북은 최근 기업명을 '메타'로 변경하기로 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스앱은 자회사 브랜드로 남기는 결정을 했다. 회사명 변경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구글이 모기업을 '알파벳'으로 회사명을 바꾸고 스냅챗이 '스냅'으로 사명을 바꾼 것처럼, 회사의 아이덴티티나 사업 방향성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 이런 전략적 결정이 이루어진다.

구글의 경우는 탐색엔진 기업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AI를 비롯, 자율주행 등 새로운 분야의 선두기업으로 인식되고자 하는 동기에서 '알파벳'으로 회사명을 변경했고, '구글'은 브랜드명으로 남게 되었다. 스냅챗은 스펙타클이라는 증강현실 구현 스마트글라스 등의 출시를 통해 메타버스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기로 하고 그 전략의 일환으로 소셜 미디어 이미지를 강하게 담고 있는 챗(chat)을 떼어낸 '스냅'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페이스북은 소셜 미디어의 개척자이며 최강자다. 그런 페이스북이 소셜 미디어 기업 이미지를 탈피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회사명까지 바꾼 것이다.

지난 몇 년간 페이스북은 여러 형태의 도전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가입자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플랫폼이 갑자기 다운되는 등 가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하이테크 기업들의 데이터와 정보의 독과점화를 방지하기 위해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군을 분할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이 2012년 인수했던 인스타그램이나 2014년 인수했던 왓츠앱을 분할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페이스북 전 직원이 미 의회에서 증언을 통해 회사가 공공의 이익보다는 수익에 관심이 더 많으며, 이런 문제점을 분석·지적하고 회사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내부보고서를 경영진이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력이나 혐오 그리고 가짜 뉴스 등을 여과 없이 플랫폼에서 제공하였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비판자들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가 많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층들에게 마약처럼 중독증세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다. 많은 시간을 소셜 미디어에서 보내도록 부추기고 이런 플랫폼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약이나 니코틴 중독처럼 고통스럽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카카오톡 접속을 막는다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이런 소셜 미디어 중독증 주장에 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소셜 미디어의 파위는 그만큼 막강하다.

그런 만큼 이런 소셜 미디어 사업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견제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ESG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이런 기업들의 광범위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회사명을 변경하는 배경에는 소셜 미디어 기업에 대한 압박과 불확정성을 메타버스에 대한 새로운 투자와 기회창출로 전환하려는 전략과 의도

‘사라지는 기업, 사라지는 일자리’

**디지털화의 사회적, 변혁적 환경에 처한
기존 기업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 엿보인다.(여기서부터는 페이스북 대신 메타라는 기업명으로 표기하겠다.)

메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메타버스 관련 기술과 사업을 이해해보자. 메타는 이미 약 1만 명의 직원들이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스마트글라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메타는 2014년, VR 제품 개발사인 오쿨러스를 인수하기도 했다. 재미있는 것은 메타 출범과 동시에 오쿨러스라는 브랜드는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메타가 이 사업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브랜드를 통일하기 위함이다.

메타의 경영자 마크 저커버거는 “우리 회사는 소셜 미디어에서 메타버스가 주업인 기업으로 진화할 것이다.”라고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럼 메타버스는 무엇이고 미래 메타버스는 어떤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메타버스가 “시공간을 초월해 멀리 있는 사람과 만나고 새로운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다음 단계”라고 설명했다. 매우 개념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이다. 메타버스는 그 미래의 형태나 생태계가 분명하지 않은 미지의 산물이자 현상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정확히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미래의 삶이나 행동 패턴을 바꾸어놓을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메타버스란 말은 미디어에서 유행어처럼 사용되지만, 정작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제공할 진정한 가치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하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최고 경영자 사티아 나델라는 “미래는 모든 것이 원격에 의해 작동되는 세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즉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원격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이미 인터넷의 보편화로 시간을 초월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타고 작동되는 유튜브나 이메일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간다. 온라인 쇼핑 또한 24시간 쉬지 않고 오픈되어 있는 장터다. 이런 형태의 새로운 구매형태는 쿠팡이나 마켓컬리처럼 다음 날 새벽배송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만들



**기업 생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
가이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 김종식, 박민재, 양경란 지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우리는 3차 산업 시대 발전 곡선의 끝자락에 있다. 기업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여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납기 단축의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더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지 모른다.

이제 4차 산업 시대 초입에서 기업은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재도약과 성장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업종이 아닌 기업에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과정은 멀고 힘든 여정이다. 하지만 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만이 살아남기 때문이다.

었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입맛을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을 넘어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소비자들이 홈 딜리버리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생태계가 되어가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생태계 구축으로 시간의 제약을 극복해나가듯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자는 것이 메타버스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다. 확장 가상세계 또는 가상 우주라고도 불린다.

메타버스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디지털 가상 또는 증강세계를 체험해왔다. PC 스크린에서 커서를 움직여 대영박물관 곳곳에 전시된 유물들을 안방에서 편하게 앉아 관람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출시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는 비행기 조종 게임은 전문조종사들이 훈련용으로 사용하던 시뮬레이터의 데스크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안방에서 원하는 시대와 국가를 선택해 비행기를 실감나게 조종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시공을 넘나드는 체험을 하게 된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짜릿한 체험을 원하지만 그런 놀이터까지 갈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홀로렌즈나 오쿨러스 같은 스마트글라스가 그런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카카오프렌즈는 춤거나 비 오는 날에도 편안한 실내에서 증강현실로 골프를 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디지털 시뮬레이터 또한 사용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게 도와준다. 미래는 모든 것이 원격으로 움직이는 세상이란 말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시뮬레이션 활용기술은 게임뿐만 아니라 화장품, 패션, 의료, 교육, 건축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메타버스가 저커버거의 비전을 실현하여 사람들의 정보와 미디어 놀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기나 데이터 형태, 콘텐츠의 제한 없이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참여가 가능한 상호운영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메타는 금년에만 무려 11조 원 정도의 투자가 가상, 증강현실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내년에는 30조 원 정도의 투자가 메타버스 관련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확대 그리고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할 인건비 등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는 기존 메타의 주 수입원인 광고에서 충당되어야 한다. 메타버스의 비전이 실현되려면 전문가들은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문제는 기존 소셜 미디어 사업광고 부분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메타의 야심적인 투자계획은 도전을 받을 것이다. 더군다나 저커버거의 비전이 일반 유저들의 공감과 이해를 받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주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소셜 미디어의 가장 큰 매력이자 동시에 약점인 개인행동이나 사생활의 노출, 대중화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디지털 생태계가 우리 생활을 지배하기 시작한 현실에 벅차게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과연 가상이나 증강현실에서 큰 가치를 느낄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도 극복해야 된다. 메타버스에 올인하는 듯 보이는 저커버거의 비전이 자칫 한여름 밤의 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은 시점이다.



김 종 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뉴욕주립대 기술경영석사 과정 주임교수
 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특임교수
 미국 퍼듀대학교 공학박사
 전) 커민스 코리아/커민스 차이나 대표이사
 전) 타타대우상용차 대표이사
 전) 인도상공회의소 회장
 전) 외국기업협회 회장

알츠하이머병 위험 인자

이 승 희

1. 염증이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킨다



영국의 과학 잡지 『네이처』는 2019년 11월 28일 푸른색으로 표시된 ‘타우’ 단백질이 가득 들어찬 신경세포(뉴런)의 모습을 표지에 실었다.

타우 단백질은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함께 알츠하이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로 추측되고 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뇌 속에서 응집(플라크)

형태로 뭉쳐 있고 타우 단백질은 과인산화되며 신경섬유 속에 축적된다. 뇌 속에 존재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둘 모두 신경퇴행성 뇌질환과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킨다. 다만 둘 사이의 연관성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독일의 본대 신경퇴행성질환 및 노인정신의학부 미하엘 헤네카 교수 연구팀은 염증조절 복합체 ‘NLRP3 인플라마좀’이 타우 단백질이 축적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2019년 『네이처』에 발표했다. NLRP3는 세포에서 독성물질에 반응해 염증세포의 사멸을 일으키는 물질인 인플라마좀과 복합체를 구성해 염증을 조절한다.

연구팀은 전두측두치매(FTD)로 사망한 환자의 뇌와 뇌세포, FTD를 일으킨 쥐의 뇌를 분석한 결과, 인플라마좀이 일으킨 염증이 타우 단백질의 과인산화를 유도하는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섬유 속에 존재하는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되면 제거되지 않고 신경세포 속에 축적되면서 신경섬유를 엉기게 만든다. 염증반응이 타우 단백질 축적을 유도하는 것이다.

2. 당 대사 및 항염증 반응과

관련된 단백질 변화가 알츠하이머 초래?

미국 에모리대 의대 에릭 존슨 박사와 니콜라스 사

이프리트 박사, 앨런 레비 박사, NIA 행동신경과학연구소 임상 및 증개 신경과학부 책임자인 마다브 탐비 세티 박사를 비롯한 연구팀은 먼저 뇌에서 생물학적 과정을 반영하는 단백질 그룹(혹은 모듈)을 식별해냈다. 이어 이 단백질 모듈이 알츠하이머 및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의 다양한 병리적, 임상적 특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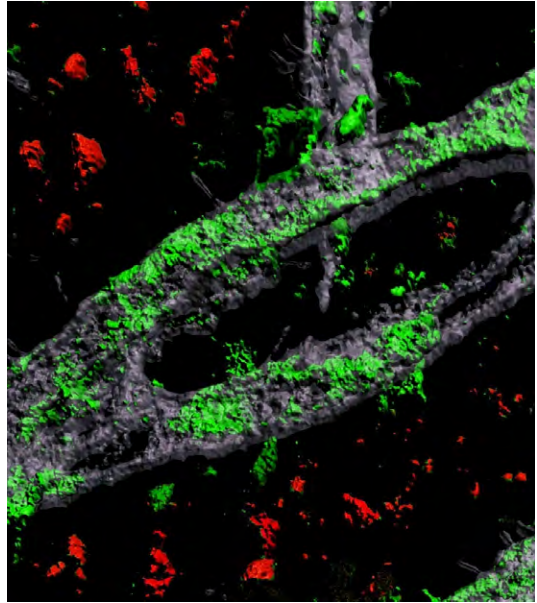
분석 결과, 인지 기능은 정상이지만 뇌 병리를 가진 개인들과 알츠하이머 환자 모두의 뇌 표본 신경교세포에서 당 대사(glucose metabolism) 및 항염증 반응과 관련된 단백질에 변화가 생긴 사실을 알아냈다. 연구팀은 이것이 신경세포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항염증 과정이 질병에 반응해 활성화된 결과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연구팀은 뇌척수액에서 발견된 결과를 재생성해본 결과, 뇌 조직과 마찬가지로 세포가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방식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척수액에서는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 단백질 가운데 많은 수는 잠복성 알츠하이머병 환자, 예를 들면 인지 저하 증상은 없으나 뇌 병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당 대사/신경교(glial) 단백질 모듈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단백질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런 단백질족에 의해 반영되는 생물학적 과정들이 실제적인 질병과정에 관여돼 있음을 시사한다.

3. APOE4 유전자가 있으면 알츠하이머병 위험 증가

거의 모든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뇌 아밀로이드 맥관병증(CAA)'이 생긴다. 뇌혈관 벽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여 뇌혈관장벽(BBB·Blood Brain Barrier)의



아밀로이드 축적
APOE4 유전자형을 가진 뇌혈관 벽의 혈관에 아밀로이드 단백질(녹색)이 많이 쌓여 있다(MIT 피카우어 연구소 제공).

기능을 훼손하는 질환이다. 뇌혈관장벽은 뇌의 영양분 흡수, 노폐물 배출, 병원체 차단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인성 치매중 알츠하이머병은 APOE4(아포지질단백 4)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많이 걸린다. 알츠하이머병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로 꼽히는 APOE4 유전자형이 뇌 아밀로이드 맥관병증을 촉발하는 분자 경로와 여기에 관여하는 특정 혈관 세포를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과학자들이 발견했다.

APOE4 유전자가 있으면, 혈관주위세포(pericytes)가 APOE 단백질을 과다하게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늘어난 APOE 단백질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로 추정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응집을 유도했다. 혈관주위세포는 또한 특정 분자 경로(calcineurin/NFAT)의 활성도를 높여 APOE 유전자가 더 활발히 발현하게 자극했다.

4. 여성이 남성보다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

미국 뉴욕 웨일 코넬 의과대학의 리자 모스코니 신경과학 교수 연구팀이 인지기능이 정상인 남녀 121명(평균연령 52세, 평균 교육 수준 17년)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된 뇌 변화는 여성이 남성보다 이른 나이에 나타난다고 발표했다.

평균적으로 여성 그룹이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남성 그룹보다 30% 많고 포도당 대사량은 22%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중년의 여성이 중년의 남성보다 치매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해석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여성이 폐경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폐경 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꼽았다.

미국 메릴랜드대 혈관연구소장 알리사 클라인 교수는 뇌질환의 남녀 차이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성별에 따른 세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은 '뇌혈관장벽(BBB·Blood Brain Barrier)'이 서로 다

른 행동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남성이 여성보다 장벽이 견고하며, 무언가 다르게 기능한다고 추측했다. 정확한 발병 기전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뇌혈관장벽의 기능 차이가 성별 뇌질환 양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메릴랜드대 연구팀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뇌혈관장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여성이라면 평소 뇌질환에 더욱 관심을 갖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하였다.

참고문헌

1. Christina Ising, Carmen Venegas, et al.(2019), "NLRP3 inflammasome activation drives tau pathology," Nature 575, 669-673.
2. Johnson, E.C.B., Dammer, E.B., Duong, D.M. et al.(2020), Large-scale proteomic analysis of Alzheimer's disease brain and cerebrospinal fluid reveals early changes in energy metabolism associated with microglia and astrocyte activation. Nat Med
3. Joel W. Blanchard, Michael Bula, et al.(2020), Reconstruction of the human blood-brain barrier in vitro reveals a pathogenic mechanism of APOE4 in pericytes, Nature Medicine(2020).
4. Aneela Rahman, Eva Schelbaum, et al.(2020), "Sex-driven modifiers of Alzheimer risk, A multimodality brain imaging study," Neurology Jun 2020
5. Weber, C. M., & Clyne, A. M. (2021), "Sex differences in the blood-brain barrier and neurodegenerative diseases," APL bioengineering, 5(1), 011509.



이승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박사
 (前) 도이치증권 Asia Index Arbitrage 이사
 (前) 모간스탠리증권 주식부 이사
 (現) 나사렛대학교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관심분야: 뉴로마케팅, 빅데이터분석



선배는 꼰대일까?

이종구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본, 젊은 세대를 향한 선배 세대들의 충고가 기억에 남는다.¹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먼저 현재 60대 이상의 '국제시장' 세대. 군부독재라는 억압적인 정치 분위기 속에 경제재건이 시급했고 당장의 보릿고개를 굽주리지 않고 지내야 하는 절대과제를 지니고 살았던 세대로 결국 우리나라 경제기반을 기적적으로 일으킨 소중한 선배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실업을 걱정하는 현재의 20대(그들의 자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금 중소기업과 3D 업종에서는 사람이 없어 난 리인데 너희는 왜 편한 직장만 바라보고 있지? 왜 우리처럼 닥치는 대로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할까?”

다음, 50대의 '민주화' 세대. 군부독재에 과감히 맞서 싸웠고 결국 승리를 맞본 저항의 세대, 부조리와 불합리에 앞장서 투쟁하면서 문민정부의 기틀을 마련했던 세대이다. 그들이 20대들에게 하는 말은 이렇다.

“너희는 지금 부조리와 불합리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만 하고 있어. 왜 우리처럼 부당함에 맞서 싸우지 않는 거지? 부당함을 어필해서 사회를 변화

시켜봐!”

마지막으로 40대, 소위 '298' 세대. 민주화를 지나 문민정부와 IMF 시대에 20대를 보냈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었던 자유로운 영혼의 세대이다. 이들이 하는 말은 이렇다.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인생을 설계했어. 너희는 왜 자유롭지 못하고 눈치만 보니?”

선배들의 충고와 질책은 각 시대적 상황으로 유추해보면 일면 이해가 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불가피성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 선배가 20대에 공통으로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림: 이연우

1 『뉴스타파』 김진혁 미니다큐 Five minutes, <https://newstapa.org/23015>



‘희망’이었다. 피땀 흘린 노력으로 경제를 재건하여 잘 살아보겠다는 희망, ‘그날이 오면’을 부르며 독재와 기득권에 맞서 싸워 스스로 쟁취하리라는 희망, 이제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선진국을 향해가자는 밝은 미래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젊은 세대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선배들은 젊은 세대를 위해 희망의 장을 준비해 주었는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청년실업 문제 등 어느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기는커녕 ‘오늘보다 더 나쁘지 않은 내일’이라도 오기만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선배 세대들이 젊은 시절에 가졌던 희망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가혹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이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이었든가? 그게 바로 ‘절망’ 아닌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후세에게 강조하신 말이 있었다. “낙망(落望)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이 말을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가 깊이 새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

책방에 쌓여 있는 자기개발서와 힐링서들 그리고 강연 등 여러 채널을 통하여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결코 헛되거나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문제는 선배 세대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후배 세대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속칭 ‘꼰대질’이라고 한다.

리더십 연구 및 개발센터인 와이즈먼 그룹을 이끄는 기업가 리즈 와이즈먼은 자신의 저서 『멀티플라이어 이펙트(the Multiplier Effect)』에서 꼰대질을 ‘데미니셔’들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태라고 표현했다. 데미니셔는 그녀가 말한 두 가지 리더상 중 하나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조직 안에서 만드시 인정받으려 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자신의 지성에 매료되어 다른 사람의 지성을 억누르고 조직에 필요한 역량을 고갈시키는 리더를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주위의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 더 똑똑한 사람으로 만드는 리더가 있다. 직원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영감을 불어넣어 최대한의 역량을 끌어내도록 하여 기대 이상의 결과를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리더이다. 그녀는 이러한 리더를 ‘멀티플라이어’라 부른다.

멀티플라이어는 다른 사람의 모든 잠재력을 일깨우고 조직 전체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인다. 또한 각 구성원의 고유한 지적능력을 불러일으켜 혁신이나 집단 지성을 생성하고 전체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리더를 말한다. 즉 사람들의 다양성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최적으로 활용하는 리더이다.

불행히도 우리의 주변에는 멀티플라이어보다는 디미니셔에 가까운 리더 스타일이 훨씬 더 많다. 선배는 없고 꼰대는 넘치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유대인인면서 독일의 저명한 사상가인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다양한 가치를 인식하고 가장 그답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이다.”²

구성원의 다양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머리로 이해하면서 또한 가슴으로 수용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하

는 리더는 조직을 발전의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바로 이것이 멀티플라이어 리더십이자 ‘다양성의 리더십’이다.



이종구 경영학박사

전자공학도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거쳐 노키아,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에서 비즈니스 경력을 쌓았다. 이어서 글로벌 IT 기업인 ‘NICE’와 ‘제네시스 코리아’에서 한국 자사장을 역임한 IT 전문가이다. 한편 경영학을 수학하면서 ‘다양성(Diversity)’을 처음 접하고 다양성을 기업 경영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전략을 찾아 여러 논문을 발표했다. 2015년에 기업 전략서인 ‘다양성 전략(Diversity Strategy)’을 발간하고 2019년에는 다양성 칼럼집인 ‘다양성 시대(Diversity Era)’를 발간하면서 다양성 설파에 나서고 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HI-AI & Computing) 산학협력교수로 재직중이다.

2 『기도의 정석』, 신우인, 포이에마, 2010년.

변덕스럽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뷰카 시대, ‘나로서기’가 왜 필요할까?



홀로서기로 상처받은 영혼을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나로서기

존재인식 - 자기인정 - 의지강화 - 미덕추구 - 가치실현

나 자신이 바로 섰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균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나로서기의 본질이다.

연택트 시대에 자아(自我)를 찾아 인생에서 성공과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셀프리더십 명상지침서**로 나로서기 바란다.

『뷰카 시대 나로서기』 | 배병욱 지음

코로나 이후 디커플링 전략

이영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 2년째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은 결국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었지만 여건상 당분간은 확진자가 늘고 사회적 부작용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그동안 사회적 격리로 멈췄던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국의 양적 완화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왜곡된 흐름이라는 부작용을 빚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드 코로나로 개방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인플레이를 막아야 하

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 유지 등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 중에도 수출은 전년 대비 26% 성장하고 경제도 3.5% 이상 성장을 예견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은 전년대비 100% 이상의 놀라운 성장과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당초 계획했던 GDP 6.5% 성장은 어려워졌고 지난 3분기에는 -6.17%라는 초유의 침체도 겪었지만 여전히 3% 성장을 예견하고 있고 세계은행도 내년도 성장을 6%를 넘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로나로 강제 격리가 전국적으로 강화되었음에도 수출은 전년 대비 24.4% 성장을 이루며 내년도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1. 팬데믹 후유증

디지털화 촉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격리와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비즈니스와 사회활동 모든 면에서 디지털화(Digital Transformation)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인류사회가 이 일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봅니다. 문명화 3.0으로 불려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 생활과 문화와 사회제도를 이루었던 아날로그 대면 중심의 모든 시스템과 통념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으니깐요. 심지어 현실세계를 넘어 가상현실의 시공간에서 비즈니스를 이루는 메타버스까지 도래하니, 사람들이 가상세계는 물론 현실세계에서조차 사회성이 떨어지고 존재감이 무력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원가 상승

이번 팬데믹의 여파로 원자재 가격인상과 물류비가 폭등하여 물가인상이 우려됩니다. 거침없이 풀린 재정을 회수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는 서서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금리인상 및 그 후유증도 염려됩니다.

더불어 각국 정부는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경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환율방어에 나서고 있지요. 전세계 돈의 흐름은 안전하고 이윤이 높은 고금리로 쏠리기 마련입니다. 미 연준의 테이퍼링에 환율방어에 취약한 신흥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필연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늘어나고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3C 즉 'Cost, China, Currency'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Cost 즉 원가는 원자재 및 물류비가 폭등하면서 작년 연초 대비 구리는 34%, 코로나 이전 대비 2배가 올랐고, 국제유가도 배럴당 2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여 이미 80달러가 넘어서서 전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올겨울 특히 라니냐 영향으로 동북아시아의 기온이 많이 하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석유 값이 올라 난방비와 휘발유 가격 등 에너지 가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원자재가 격 폭등은 단기적으로 생산이 막히고 물류라인이 끊어지면서 수급불안이 심화돼 빚어진 것으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로나로 촉발된 물류 대란은 전세계 항만에 컨테이너 적체현상을 야기했습니다.

베트남 물동량의 80%를 차지하는 호치민 깃라이 항구에서도 적재된 컨테이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역작업자들이 코로나로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었지요. 또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컨테이너가 제때에 다시 회수되지 않아 한곳에는 잔뜩 쌓여 있고 다른 곳에서는 컨테이너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수급 불균형이 물류비용 폭증을 불러왔습니다. 글로벌 해운 컨설팅 업체 Drewry가 발표한 세계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보면 5년 평균이 2,396달러였으

나 지난 9월 기준 1만 377달러로 4.3배나 폭등하였다
고 합니다.

최근 철강 자재들도 정치적인 이유로 수급 불균형
이 심화되어 폭증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우리나라는
조선공업이 다시 황금기를 맞고 있지만 후판 공급가
격이 금년에만 60% 올라서, 수주는 넘쳐나는데 경영
은 적자를 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2. 탈중국화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촉발된 탈중
국화(Decoupling)가 향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고 있으
며, 전 세계 물동량 수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습니다. 세계는 국가를 넘어 전 세계 곳곳이 수요와 공
급이 촘촘하게 연결된 다중무역 구조로 성장해왔습니
다. 그런데 정치와 경제적인 이유로 제재가 가해지면
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중국 의존도가 대단히 높

습니다. 해외 수입의존도가 50%가 넘는 위험물품이
1,088개로 집계되고, 의존도가 70% 이상인 취약품목
은 653종이나 됩니다. 이런 여파로 최근 디젤 화물차
의 발을 묶었던 요소수 수입문제라든가 반도체 수급
불안 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지요.

더 위험한 것은 미래 성장산업인 배터리나 전기자동
차에 꼭 필요한 리튬과 마그네슘은 중국이 전세계 물
량의 83.5%와 85%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이뿐인가
요? 희토류나 실리콘 등 많은 희귀 원자재들도 중국이
절대적인 강자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쥐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중국시장을 있는 그대로 다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중국시장의 이해

중국은 최근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가시화되면서,
중국 공산당 주도의 국가 자본주의를 강력히 내세우
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주도
의 자본주의 방식의 의사결정 지연이나 내부조정을



통한 사회적 갈등을 차단하고 공산당이 주도하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표방하고 있지요. 문제는 이런 정책을 중국 내부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주변국가 및 이해관계가 걸린 국가들이 불편해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대륙의 꿈이라고 불리는 '중국몽'을 내세우며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까지 엮어서 일대일로로 대륙과 인도양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블록을 세력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주의 통치이념 확산을 주도하고,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제2의 홍위병이라 불릴 정도로 애국주의에 몰입해 정부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와 교류하는 SNS에서도 이에 따른 폐단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지요. 상대편에 대한 배려나 이해보다는 자기 주장을 우선시하는 일방적이고 편협된 이해관계가 주변을 불편하게 합니다.

중국은 2015년에 이미 제조업을 통한 '중국굴기'를 내세우면서 중요부품 및 소재를 국산화하겠다는 MIC 2025를 시작하였고 기술자립을 위해서 연구개발 R&D 등에 정부 보조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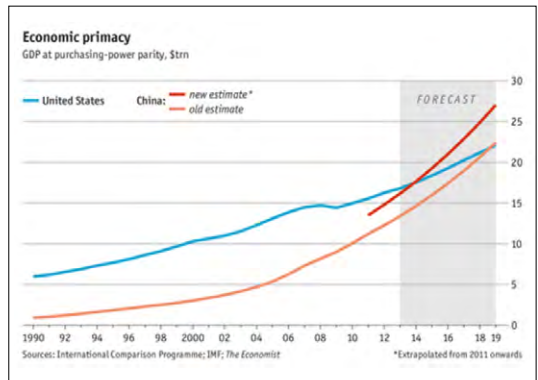
그 결과, 많은 공산품 기술이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고 이미 일부 품목은 중국이 앞서가고 있지요. 이제 세계는 중국산 없이 부품이나 완성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해외 기술주도 업체들에 대한 인수 합병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2016년에 미국 주요 기업들에 대한 M&A는 무려 550억 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376%나 성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정부에서 지원하는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기금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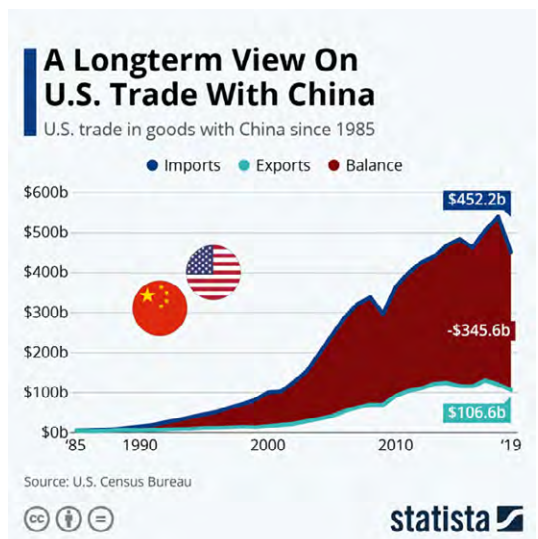
중국의 고도성장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중국의 GDP는 14.7조 달러로, 미국 20.9조 달러의 턱 밑(70%)에까지 올라왔습니다. 현 추세로 중국은 2025년이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 해외 주요기관에서도 2028년 이전에 미국을 앞설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구매력 평가지수(PPP)를 반영한 GDP 기준으로는 중국이 2013년에 이미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보여준 대응은 여러 시사점을 줍니다. 미국은 이 모든 대응에 리더로서 정치·경제·국방·기술 등 각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지요. 여기에 유럽과 일본이 제한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분상 동참을 하면서도 각국의 셈법은 복잡합니다. 유럽은 주요 국가들이 새로운 이해관계



에서 실리와 균형을 찾으려 하고 있고, 일본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양패권을 쥐기 위해 편승하고 있지요.

북한과 맞붙어 있는 우리나라의 썬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 제일의 무역국이자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정책에 동조하자니,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거꾸로 기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점과 역할을 잘 살린 균형 있는 외교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를 위한 분명하고 스마트한 목소리를 내는 리더십과 전 국민의 성원이 절실합니다.

4. 중국 공급망

중국은 국제사회의 공급망으로서 미국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2019년 통계로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1,066억 달러, 수입은 4,522억 달러로 무역적자가 3,45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성장의 재원은 상당부분 미국이 제공해 준 면이 크다고 볼 수 있지요.

이것은 제품만 놓고 본 것이고, 무역의 또 다른 축인 서비스 교역에서는 미국이 365억 달러의 흑자를 보았지만 제품 무역적자가 워낙 커서 실제로는 3,000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기록합니다.

여기서 잠깐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본 취지와 배경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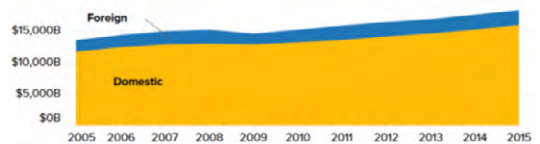
FTA는 아시다시피 미국이 주도적으로 창안하였습니다. 미국은 WTO 체제에서 다자간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개별 국가나 역내 국가들을 상대로 개별 무역협정을 추진합니다. 각 나라마다 관심 품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FTA는 국가 대 국가 또는 국가 대 지역의 1:1 협상이고 맞춤형

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미국이 FTA를 서둘렀던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 2차 대전 후 주도적으로 세계시장을 리드하였던 제조업이 일본, 독일, 한국 등 신흥국가에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해외에서 사들이면 그것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미국의 달러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서비스를 해외에 동일한 조건으로 교역하는 틀을 만들었지요. 즉 제품은 수입하고 서비스는 수출하는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틀을 만든 것입니다. 미국이 경쟁력을 가진 서비스는 잘 알다시피 의료, 금융, 교육, 공공행정, 홍보, 법무, 지적재산권 등 다양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생산된 저렴한 공산품을 낮은 관세로 들여오면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이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지난 10여 년 동안 팔목할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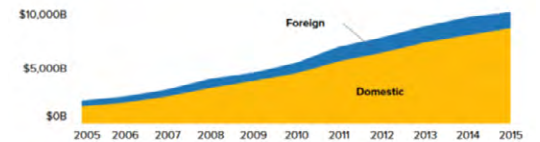
미국의 공급체인 의존도



외국 공급체인 상위 10개국



중국의 공급체인 의존도



외국 공급체인 상위 10개국



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도 인플레이션 없이 낮은 물가를 유지한 데는 중국의 기여가 컸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돈이 풀리면서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기현상이 벌어진 셈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에서 재미있는 점은 미국 내수 시장에 공급되는 수입품의 비중이 12.2%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수입품 중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지요. 중국도 역시 내수경제에 기여하는 수입품 비중은 14.2%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이 주요 공급국들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내수시장 수입 의존도가 40%에 달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해외의 위험요인이 그대로 국내 산업에 반영되는 취약함을 보입니다.

5. 미·중 상호의존적

다른 각도에서 보면 미국의 중국 의존도도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에 1,652억 달러를 수출하고 유발효과로 268만 명을 고용합니다. 전술한 것처럼 물가인상이 억제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요.

때문에 디커플링으로 탈중국화를 시도했을 때 관련 산업의 피해를 예측해보면 심각합니다. 항공산업은 510억 달러 영향을 받고 22만 명이 실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도체는 1,240억 달러에 10만 명이 실직하고, 화학제품은 380억 달러에 10만 명이 실직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 Fitch가 조사한 결과로는 탈중국화를 83%가 반대합니다. 이것은 2017년에 77%, 2018년 80%로 점차 해마다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중국 의존도가 점점 높아져 간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꺼리면서도 중국 내수시장의 폭발적인 잠재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2021년에는 가구소득 평균 3만 5,000 달러 이상의 중산층이 400만 가구였는데, 불과 10년 후인 2025년에는 1억

8,000만 가구로 성장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의 폭발하듯 커지는 중국시장을 어느 기업이든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30년 중국의 내수시장은 12조 7,000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이는 한국 내수시장의 17배나 됩니다. 따라서 내수시장에 대해서는 포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로 성장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중국시장과 시장을 뒷받침하는 중국정부의 규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적인 고민이지요.

6. 중국의 진로

이를 잘 알고 있는 중국정부는 세계시장의 공급과 수요라는 양대 축을 잘 활용해서 자신들의 정책과 신뢰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지는 대만 이슈나 중동, 아프리카, 유럽까지 뻗치고 있는 일대일로, 살얼음판 같은 동북아 정세, 여기에 RCEP를 통한 다자간 무역 네트워크,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삼는 국제금융 영향력 확대, 특히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화폐 CBDC로 디지털 금융의 패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민간 기업들의 정보화 집중으로 중앙 집권력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심의 통제된 중앙경제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보를 일원화해서 집중관리하고 중앙통제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민심을 얻기 위한 분배정책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에너지 확보 및 향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자립, 우주개발 등을 통한 영역확대도 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중간의 갈등은 대기권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금까지 중국의 공급망에 의존하고 중국 내수시장에서 이익을 취하던 많은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키워주고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최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탈중국화 정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¹ 여기서 저자는 관련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급망에 얼마나 의존하는가? 내수시장에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가? 등을 바탕으로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각각의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우선 공급망 의존도도 매우 높고 내수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군을 'Dual Player'라 칭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탈중국화 추세에 맞춰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고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서 현지법인 생산을 추진해야 합니다. 즉 현지화를 서두르는 것이지요. B2B를 위해서는 'in China for China' 전략으로 중국 내수용으로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바로 중국 현지화에 맞춤형 제도가 됩니다. 결들여서 코철 기업들과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IT 디지털화로 지속적인 성능 및 품질개선 혁신을 이루고 경쟁우위를 유지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의존도는 높지만 시장 점유율은 낮은 기업군을 'Upstream Player'로 칭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대체 공급망을 시급히 확보할 것을 추천합니다. 즉 'China + 1' 전략이지요. 대체 후보지로는 베트남이 단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중에도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JAICA 중심으로 투자를 서두르고 있고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에서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을 계속 확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술개발, R&D, 디자인 개선, 브랜드 로열티 ESG 경영을 통한 차별화를 시도해볼 만합니다.

중국 조달은 많지 않지만 중국시장 판매량이 클 경우 이들은 'Market Player'로 봅니다. 시장의 흐름에 맞춰 현지 트렌드에 대한 선도적 반응이 필요합니다. B2B를 위해서는 'in China for China' 전략을 적극적

으로 수용하고 중국 현지화 판매, 디지털화로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내수시장에 맞춰 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현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현지 업체와의 제휴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현지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기술, 디자인, 브랜드 등 차별화된 핵심역량이 없으면 현지시장 확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도 적고 판매도 적은 제한적 참여 업체들은 중국정부의 방침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의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위험관리 대비책을 세우고 출구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하루아침에 판매가 중단되거나 공급망이 끊기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몇 가지 전략을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중국은 놓칠 수 없는 매력적인 시장이면서 위험도가 높고 변화 진폭이 큰 시장입니다. 따라서 탈중국화 시대에 중국의 공급망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중국 내수시장도 성공적으로 유지·확대하는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내: M+V=P Biz Academy, 캠퍼스 케이에서 베트남 진출 전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https://blog.naver.com/josephyglee1> 또는 인터넷창에 "이영기.블로그.한국" 입력



이영기

국립경제대학교 (NEU) 방문 교수

공유오피스 Campus-K 공동 창업

FPT School of Business, 객원 교수

josephyglee@gmail.com | kakao: josephyglee

1 HBR 『The Strategic Challenges of Decoupling』 참조

“행복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침향부부한의원입니다”



침향부부한의원

Chimhyang Bubu Korean Medical Clinic



한의학박사 부부가 진료하는
동탄 침향부부한의원은
정확한 진단과 과학적인 치료로 지치고
아픈 심신을 가족을 치료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어루만져드립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686 Tel: 031-374-1075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oolguy12412>



화성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젊은 도시 화성에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화성시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을 위해
화성시한의사회 한의사가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화성시 난임진단 부부 10쌍 (20명)

신청 및 접수

화성시 관내 사업참여 한의원에 방문접수
(접수가능 여부는 해당한의원에 확인) 또는 이메일로 직접 접수
이메일 : hsakom@naver.com

지원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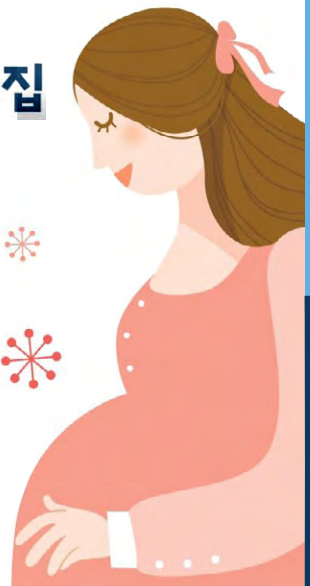
한약 전액 지원 (3개월, 부부동시지원)
(불포함내역 : 침구치료 등 내원진료 본인부담금)

문의

화성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3563
031-5189-3547
031-5189-6573
화성시 한의사회 난임위원회 (hsakom@naver.com)

The Way to Better Life
같이 열리는 화성시

화성시한의사회



이제는 ESG 시대: ESG 경영지표(2)

탁진규

ESG는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앞글자로, 환경(E)은 기후변화나 이산화탄소 배출, 폐기물이나 환경오염과 관련돼 있다. 사회(S)는 노사 관계, 노동자 건강과 안전 등을 고려한다. 지배구조(G)는 경영진 보상이나 부정·부패, 이사회 구조 및 다양성 등과 관련 있다.

ESG 평가는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평가하는 비재무적 지표이다. 그렇다면 기업의 ESG 평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ESG 평가기관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공시기준’으로서의 평가기관이며, 또 하나는 ‘평가기준’으로서의 평가기관이다.

공시기준으로서의 대표적인 평가기관은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기구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SASB(Sustainability Ac-

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공개 협의체)가 있다.

평가기준으로서의 대표적인 평가기관은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KCGS(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이 있다.

본지 지난 호에 공시기준으로서의 평가기관을 살펴본 데 이어서 이번에는 평가기준으로서의 대표적인 평가기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DJSI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는 1999년부터 미국 S&P Dow Jones Indices와 지속가능경영 평가 선도기업인 RobecoSAM사가 개발하여 전 세계 2,500개 기업(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기업의 가치를 매출, 영업이익 등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인권 및 사회적, 환경적 성과와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글로벌 평가 모형이다.



출처: ESG 경영지원단

DJSI 세부 평가기준은 평가 설문지의 세부항목에 따라 가중치가 설정되며 평가에 반영된다. 이중 산업별 항목은 산업별로 주요한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따라 평가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DJSI 평가기준은 지속가능경영 이슈의 변화에 따라 매년 일부분씩 갱신된다.

경제적 측면	지배 구조 (6.0%)	리스크 관리 (6.0%)	윤리 강령 (6.0%)	산업별 항목		
환경적 측면	환경 보고서 (3.0%)	산업별 항목				
사회적 측면	인적자원 개발 (5.5%)	인적자원 보유 (5.5%)	노동 지표 (5.0%)	기업시민 의식 (3.0%)	사회 보고서 (3.0%)	산업별 항목

DJSI 세부평가기준(출처: DJSI)

한국생산성본부는 2009년부터 로컬파트너로 참여하여 S&P Dow Jones Indices, RobecoSAM과 공동으로 세계 최초 국가단위 다우존스 경영지수인 DJSI Korea를 개발하여 매년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DJSI 코리아 편입기업

산업	기업
가스	한국가스공사
가전 및 여가용품	LG전자
개인용품	LG생활건강
건설	대원산업, 현대건설
금융 서비스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담배	KT&G
무선통신	SK텔레콤
반도체	삼성전자
보험	동부화재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생명보험
산업 현지머러링	STX연진,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석유정제	SK에너지, 에쓰오일
섬유 및 액세서리	웅진케미칼
식품	농심

산업	기업
운수	한진해운
유선통신	KT
은행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대구은행
일반소매	롯데쇼핑
자동차	기아자동차
전기	한국전력공사
전기부품 및 장비	삼성전기, 대한전선
전자부품	삼성SDI
지원서비스	한진KPS, STX주
물감	포스코, 현대제철
항공운송	아시아나항공
화학	호남석유화학, LG화학, OCI, SKC

자료: 한국생산성본부·SAM

DJSI Korea 가입 기업

CDP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는 2000년에 설립된 영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기관이다. 투자자를 대신하여 주요기업의 온실가스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그 정보에 근거하여 각 기업의 온실가스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여 투자결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기구인 CDP는 전 세계 금융투자기관의 위임을 받아 주요기업에 환경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분석한다. 주요기업에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 그 기업이 가지는 기회와 위험, GHG¹ 배출 및 감축 계획 등의 성과, 거버넌스 등에 관한 질문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7년 기준 전 세계 803개(운용자산: 1,000조 달러)의 금융기관이 CDP 서명 기관으로 참여하여 기업에 기후변화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CDP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CDP Climate Change : 기후변화 정보공개프로젝트
- CDP Water : 물 정보공개프로젝트
- CDP Forest : 삼림자원 정보공개프로젝트
- CDP Supply Chain : 공급망 정보공개프로젝트
- CDP Cities : 도시 기후변화 정보공개프로젝트
- CDP Carbon Action : 기후변화 관련 투자자 행동

특히, 2008년부터 CDP 한국위원회가 정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1 GHG(Greenhouse Gas,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하는 가스로, CO2(이산화탄소), CH4(메탄), N2O(아산화질소),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 등을 말한다. 이 가운데 HFCs, PFCs, SF6는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이 합성한 가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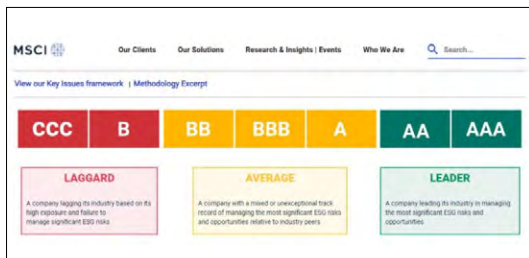
MSCI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는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서 발표하는 평가지수다.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지수와 함께 글로벌 펀드들이 주요 투자기준으로 삼는다. 기업들이 MSCI 지수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MSCI 지수를 따르는 글로벌 자금은 신흥국의 5~6배에 달한다.



MSCI ESG 평가지수(scoring method)

전 세계 8,500여 개 상장기업 ESG를 평가하여 AAA~CCC 등급을 부여한다. 2020년 11월 현재 한국의 상장기업 중 AA등급으로는 LG전자, BBB등급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BB등급으로는 한국전력, 삼성바이오, B등급으로는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CCC등급으로는 한국조선해양이 받았다.



출처: www.msci.com/our-solutions/esg-investing/esg-ratings

KCGS

KCGS(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한국기업지배구조원)는 2002년에 설립되어, 한국 기업들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상을 제시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연구, 조사를 수행하는 단체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내 900사의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등급을 부여하며, 투자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사회위원회주주총회 운영, 공시사항 등의 평가항목을 매년 전년 말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2012년부터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안분석 서비스를 시행하며, 2015년부터는 국민연금의 자문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자문을 시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태한(2020). 글로벌 환경정보공개 플랫폼, CDP.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 위키백과(2021).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조선비즈(2009). DJSI 어떻게 평가하나
- DJSI website(2021). DJSI 홈페이지
- ESG 지표의 이해(2021). 김현식, ESG 경영지원단
- www.msci.com/our-solutions/esg-investing/esg-ratings



탁진규

- 현) 명지전문대학 교양과 교수
- 현) 한국생산성본부 전략적의사결정 강의교수
- 현) 한국산업교육학회 이사 / 현) 한국성인교육학회 이사
- 현) 한국융합경영학회 이사 / 현) 진성리더십 연구원장
- 현) 경영지도사(HR/리더십/조직개발)
- 전) 순천향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강의를수
- 전) 현대경제연구원 인재개발원 전문교수

우리 음식에 어울리는 와인 페어링 탐구

이 영 배

와인에 관심을 갖게 되면 마리아주(Mariage)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원래는 ‘결혼’을 뜻하는 프랑스어인데, 와인에서는 음식과의 완벽한 조합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요. 프랑스의 치즈와 와인의 궁합처럼, 소고기 등의 육류는 ‘레드와인’, 생선이나 해산물은 ‘화이트와인’을 매칭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마리아주의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막연하고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음식과 와인 페어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개인의 입맛이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페어링이든 남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스스로 얼마나 맛있게 먹고 즐겼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생선에는 화이트와인을 마시라고 하지만 회 자체가 지닌 맛이나 질감 혹은 어떤 소스를 곁들여 먹는가에 따라 와인의 맛이 크게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생선회

섬세한 풍미에 기름기가 골고루 섞여 있는 흰살생선의 회엔 깔끔한 산미를 지닌 화이트와인이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좀 더 복잡한 풍미를 지닌 붉은살생선의 회라면 화이트와인보다는 오히려 알코올 도수와 타닌이 낮은 레드와인이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보통 생선회에 레드와인 페어링을 떠올리기 어렵지요. 하지만 서늘한 곳에서 자란 피노누아는 체리와 자두 풍미에 높은 산도, 미네랄과 부드러운 타닌을 지니고 있기에 생선회와 훌륭한 페어링을 이룰 수 있습

니다. 반면 붉은살 생선의 회에 화이트와인을 곁들이면 오히려 생선회의 비린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듬 해산물

제철 맛은 해산물은 바다냄새와 더불어 자체에서 우러나는 단맛이 일품입니다. 소라, 해삼이 지닌 오돌오돌한 식감이나 쫄깃하고 달콤한 개불, 맛이 달고 부드러운 한치회와 오징어회는 생선회와는 다른 맛과 재미를 주는 안줏거리입니다. 여기엔 산미 좋은 드라이한 또는 약간 단맛을 남기는 차가운 화이트와인이 잘 어울립니다. 제철 회와 각종 해산물 그리고 새우튀김까지 거의 모든 요리에 훌륭한 조화를 이루는 와인을 꼽으려면 리슬링이 있습니다. 산지나 종류 등에 따른 단

맛에 차이는 있지만 리슬링은 언제나 드라이하고 산미가 좋으며 미네랄 풍미가 두드러지기에 이러한 음식과의 와인 페어링에서 절대 실패 없는 선택입니다.

삼겹살

누구나 좋아하는 삼겹살은 탄닌 성분이 풍부한 레드와인이나 산도가 높은 화이트와인보다 환상적인 마리아주를 자랑합니다. 특히 레드와인의 탄닌 성분이 삼겹살의 지방을 잡아주고 입안을 깔끔하고 개운하게 만들어줘서, 흔히 곁들이는 소주보다 고급스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이트와인으로는 묵직한 오크향의 샤르도네가 제격이며, 레드와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블렌딩 레드와인에서부터 까바르네 소비뇽, 시라, 말백 등 적절한 산도와 탄닌감을 지닌 와인이 어울립니다.

삼계탕

여름의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에는 국물과 육질뿐만 아니라 특유의 인삼 풍미까지도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와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청량한 느낌의 스파클링 와인이 잘 어울립니다. 풍부한 기포와 감귤, 망고, 바나나 등의 열대 과일향이 가득해 식전주로도 잘 어울리지만, 삼계탕에 곁들이면 기분 좋은 향미가 입안을 깔끔하게 해줍니다.

찌개 국물요리

지친 심신을 달래는 데는 따끈한 국물에 밥 한술 말아서 속을 채우는 게 최고입니다. 따뜻한 기운이 몸 안에서부터 퍼져 나와 굳은 몸이 부드럽게 풀리는 기분이 드는데, 이런 국물요리에 어떤 와인이 어울릴까요?

사실 매칭하기가 쉽지 않은 게 국물요리입니다. 뜨거운 국물에 섞서 16~18도 정도의 레드와인이나 혹은 차가운 화이트와인을 마시면 와인의 풍미를 제대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해물탕은 지중해식 해물스튜인 부야베스를 먹을 때와 유사한 와



호텔식 요리와 합리적인 가격의 와인, 그리고 문화가 있는 공간 ‘살롱드 상상’

살롱드 상상은 해외 특수물류사업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맛과 멋을 탐색하던 대표와 28년간 호텔신라, 탑클라우드를 통괄했던 세프가 고객들의 오감을 채워가는 공간입니다. 유럽 각국에서 가져온 다양한 오브제들과 매월 진행되는 살롱 콘서트 & 다이닝, 상시 이루어지는 문화의 시간들로 19세기 프랑스의 살롱 분위기를 현대에 맞게 재현하려 합니다.

예약 : 02-324-4040

어시스트 동문과 재학생 방문 시 10% 할인

인을 곁들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칼칼하게 끓인 서더리탕 같은 경우는 와인 페어링이 어렵지만, 각종 어패류와 문어, 꽃게 등이 들어간 전골은 다양한 로제와인과 곁들이면 그야말로 찰떡궁합입니다. 까바나 샴페인 또한 괜찮은 선택이지요.



한식 밥상

방금 지은 쌀밥에 국이나 찌개, 고기와 나물 등으로 차려지는 기본적인 한식 밥상에 소주 대신 와인을 반주로 곁들이는다면, 향기로운 소비뇽 블랑이나 오프 드라이하며 산미가 좋은 리슬링 그리고 잘 익은 과일향에 균형 잡힌 피노누아가 좋겠습니다.

간장, 다진 마늘, 후추, 설탕 등에 재운 뒤 구운 불고기 같은 고기요리는 달콤하기도 하고 짭짤하며, 진한 감칠맛을 냅니다. 여기에 고기를 씹어 올리고 마늘이나 김치, 쌈장을 곁들여 먹는다면, 스파이시함이 더해지는 동시에 감칠맛이 더욱 진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밥상에는 드라이한 로제나 진한 과일 풍미에 탄닌이 적고 산미 좋은 레드와인이 잘 맞습니다. 어린 피노누아나 보졸레, 바르베라 등이 이에 속하고, 간장 양념이 아주 달콤하다면 진판델도 좋은 페어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잡채와 각종 전

다양한 채소와 고기, 당면 등을 넣은 잡채는 와인 안주로도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간장을 기본양념으로 한 각종 채소볶음이 섬세함과 가벼움, 아삭한 식감을 주는데, 그 풍미를 그대로 살리는 데에는 향기로운 화이트와인이 적합합니다. 예를 들면 슈빙 블랑이나 드라이한 리슬링, 오크 숙성하지 않은 샤르도네 등이 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운 전은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어울리는 와인 폭도 넓은데, 채소와 해물이 많은 전이라면 산미가 높고 깊이와 질감이 좋은 화이트와인이 적합하겠습니다. 드라이한 샴페인이나 스파클링 와인, 드라이한 리슬링, 소비뇽 블랑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튀기듯이 구워낸 전은 드라이한 샴페인 및 스파클링 와인과의 환상적인 페어링을 이룹니다.

한식은 상 위에 다양한 반찬을 놓고 먹기 때문에 한 가지 음식의 맛보다는 여러 음식 간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생마늘이나 고춧가루, 발효음식에서 오는 복합적인 풍미를 지니고 있으며 뜨겁게 즐기는 국과 찌개, 전골 등은 와인과 페어링을 무척이나 어렵게 만듭니다.

때문에 한식에 와인 페어링을 할 때는 와인이 가능한 여러 음식의 풍미와 조화를 이루고 음식과 심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식에는 드라이하거나 오프 드라이(off-dry)한 와인, 탄닌이 적당한 와인이 두루 무난하게 잘 어울립니다.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바디에, 적당한 강도, 잘 익은 과일풍미, 잘 잡힌 균형을 지닌 와인을 선택하면 건강하고 더욱 멋진 낭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실 겁니다.



이명배 소믈리에/경영학박사
살롱드상상(와인전문 유티피안 레스토랑) 대표
클라코(국제물류) 대표
인스타 @sangsang_salon
페이스북 @살롱드상상



사회와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스타트레일



월간스타트레일

스타트업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온.오프라인 강의와
코칭, 네트워킹 행사

스타트레일 매거진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유익한 교육 콘텐츠를
담고 있는 웹진

‘브랜드링은
여백이름이나 디자인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의 기조이자
기결과물입니다.’

‘미친 상상력에 발을 달아 쓰어드립니다!’
매드해터 CEO/브랜드마케터/기획자

최수정

융합경영리뷰



가지 없는 브랜드, 4가지 비밀

the milk 실리콘밸리 뉴스

zoom

Group Messaging & Mobile Meetings

홍, 고모나어 최대 수석주



ASIA STARTUP NETWORK ALLIANCE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

8개국 50개
스타트업 지원 및
보육기관이 함께하는
네트워크 구축

Seoul Business School

aSSIST 경영학 박사과정

동문 네트워크, 국내 최대 규모의 경영학 박사과정
논문작성에 특화된 2년 구성 커리큘럼

현업병행, 3년 내 학위취득 가능

박사학위를 통한 커리어 전환

연구방법론 랩실을 통한 연구실적 관리



과정 문의

02-360-0702/0735

jhkim2@assist.ac.kr

hylim@assist.ac.kr

스위스, Business School LAUSANNE

BSL 경영학 박사 복수학위 과정

국내 유일의 해외대학 복수학위 박사과정

현업 병행이 가능한 학사 일정

유학 대비 저렴하고 가성비 높은 학비

3년 내 복수 학위취득 가능

▶ aSSIST(PhD) + BSL(DBA)